朝鮮日報 夕刊 二十二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重大留保條件附로 伊、不干涉案受諾
義捐金募集、義勇軍參加는不可
伊政府、正式覺書手交

【羅馬廿一日發同盟】伊太利外相 차노伯은 廿一日 駐伊佛蘭西大使 드·샹브룬氏를 外務省에 招致하고 佛國政府가 提出한 西班牙內亂不干涉協約案에 對한 伊太利政府의 正式受諾回答覺書를 手交하엿다 但 民間義捐金募集에 關한 從來의 留保條件을 固執하고잇는것은 注目된다 覺書의 要旨는 左와 如하다

一、伊太利政府는 西班牙本國及西班牙植民地에 對하야 武器彈藥 飛行機 其他 軍需品의 輸出을 禁止하기를 約함

一、以上輸出禁止는 이미 締結되고도 아직 履行치안는 契約에도 及하기로함

一、伊太利政府는 同樣의 手段을 取할 他國政府와 끈치어시 連絡을 取할것

一、伊太利政府는 英 佛 獨 蘇聯이 本協約에 參加하는대로 此를 實施할 意思가有함

一、伊太利政府는 以上과 如한 直接的 不干涉協約을 支持하는同時에 協約參加國이 私的義捐金徵募 義勇軍參加等 間接的援助도 禁止할것이라는從來의 主張을 堅持함

一、伊太利政府는 歐洲의 武器製造國全部가 本協約에 參加하기를 希望함

(寫眞은 뭇솔리니首相)

不干涉案實現코저 國際會議召集企圖
佛政府의最後的努力

【巴里二十一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二十一日에 至하야 條件附로 佛國政府의 西班牙內亂不干涉協約案受諾을 表明하엿스나 獨逸政府의 態度는 카메룬號事件으로해서 俄然硬化하야 西班牙의 陳謝와 今後의 保障을 確保치안는限 佛國案에 協力할수업다는 强硬態度를 갓고잇슴으로 不干涉協約案의 前途는 悲觀되여잇다 佛國政府는 同協約의 成立을 促進하기爲하야 國際會議의 召集을 企圖하고 現在 外交機關을 通하야 各國의 意向을 打診하고잇다한다 뗄보外相은 駐英大使를반氏와 外務省에서 會見한것은 아마 同大使로부터 各國際會議召集에 關한 英國政府의 意向을 聽取하고 懇談을 遂한것이라고 觀測되는데 政府는 國際會議召集에 對하여는 否定도 肯定도 하지 안코 그러한생각은 아직 具體化하지 못하엿다하야 明言을 避하고잇다

萬一을念慮 英、重大警告

【倫敦廿一日同盟】英國政府는압서 西班牙政府에 對하야 英國船의保護를 懇請하고 萬若西班牙艦船이 不當行動을 取할境遇에는 斷乎手段을 取하겟다는 覺書를 發하엿는데 西班牙海軍의 獨逸汽船카메룬號 臨檢事件에 鑑하야 萬若英國船이 西班牙艦船에게 不法射擊을 밧는일이잇스면 獨逸의 例에따라 곳右警告를 [illegible]

獨逸은蘇聯을攻擊 蘇聯은反獨을宣傳
佛은獨逸엔蘇聯論難資格이업다고揶揄
獨蘇關係惡化를反映

【伯林二十一日發同盟】伯林諸新聞은 一齊히 蘇聯邦의 西部國境軍備擴張의 狀況을 크게報道하야 마치 싸베트反革命陰謀公判이 열려 자조 獨逸秘密警察이 反革命運動을 支援한것이 暴露된데 對抗하는것가티 蘇聯攻擊의 策陣을펴서 外交界의 注目을 끄을고잇다 從來 獨逸의 諸新聞이 蘇聯攻擊을 할境遇에는 主로 共産黨攻擊이던바 蘇聯政府를 直接攻擊한것은 西班牙內亂을 圍繞코 獨蘇關係가 惡化된것을 反映한것이라고 보인다

【伯林二十一日發同盟】最近 西班牙內亂을 中心으로한 蘇聯邦及 西班牙에 反獨的宣傳이 자조 流布하는 事實이잇서서 獨逸政府는 右事態를 重視하고 嚴重抗議하기로 決意를 鞏固히 하고 莫斯科駐箚獨逸大使폰·쉘렌부르크博士는 本國政府의 訓令에基하야 二十一日午前 蘇聯外務委員部를 訪問하고 左와如히 抗議를 提出하엿다

蘇聯邦放送局은 最近 故意로 獨逸을 中傷함과如한 宣傳放送을 하고잇는데 이것은 明白히 國際信義에反하는 不法行爲이다 이러한放送은 速히 中止하기를 要請한다

獨逸政府는 同時에 西班牙政府에對하여야 同國의 共産黨員이 獨逸居留民에對하야 不法迫害를 加하는事實을 指摘하야 嚴重抗議를 行하엿다

【巴里二十一日發同盟】獨逸新聞이 蘇聯政府의 國境地方의 軍備擴張을 執道하야 蘇聯攻擊의 筆陣을 펴고잇는데 對하야 佛國側에서는 獨逸에는 蘇聯을論難할 資格이업다고 如左히 말하다

獨逸은 蘇聯國境方面의 兵營構築을云云할 資格은업다 獨逸이야말로 三月七日 라인란드進駐以來 同地에 兵營其他軍用建築物을 續續建造하고또 발틱方面에서는 軍事的 施設로 크루프製鋼會社의 게르마니아造船所에서 盛히 軍艦建造를 行하야 발틱諸國의 神經을 날카롭게하고잇다

戰局은膠着狀態
叛軍、宣傳에만熱中
赤色革命回避가叛亂目的이라고

【앙데이廿一日發同盟】西班牙北部의要衝 산·세바스티안市의 攻防戰은 二十一日에 至하여도 戰局이 進展되지안코 政府軍은 산·세바스티안의近郊 十五키로의地點에서 叛軍進擊을 阻止하고잇다 市中은 平穩을 保持하고 이 산·세바스티안間의 道路도依然 通行可能이다 政府軍은 二十一日以來 佛西國境地帶에 鐵條網을펴고 戰線擴大를 防止하고잇다

【라바트(佛領모롯코)廿一日發同盟】西班牙南部의 要衝 세빌리아市에據한 叛軍部隊는 二十一日午後 라디오放送을 通하야 政府軍의 內部內訌을 暴露하여 大要 如左히 述하엿다

西班牙政府는 라디오를 通하야 叛軍의勝利를 宣傳하고잇는데 政府軍內部는 벌서 混亂腐敗의 極에 達하야 崩壞寸前에 瀕하엿다 特히 카탈로니아自治州首都 바르셀로나市는 諸政黨과 無政府主義者와의사이에 激烈한 內訌을 繼續하고 잇스므로 이것이 赤色軍部의 瓦解로 西班牙는 完全히 赤化로부터 救해질것이다

叛軍은 라디오放送으로 伊政府의 態度를 讚揚하야가로되 伊政府와 國民은 一致團結하야 强固한 組織을 形成하고잇다 吾人은如斯한 祖國에對하야 深甚한敬意를 表한다 但 伊太利政府 [illegible]

[illegible]

獨逸에의陳謝를 美佛側勸告?

[illegible]

國策閣議再開
來週中엔困難乎
電力國營案이最大暗礁

【東京電話同盟】國策閣議再開에 압서 事前折衝은 二十一日의 定例閣議後의 第二次四相會議로 大體 一段落을 告하야 國防充實 産業振興 國民生活安定及 稅制整理의 四大基準에 基하야 國策項目의 內定을 보게되엇스므로 馬場藏相은 兩日中에 再次 陸海軍과 前田鐵相以外의 全閣僚와 會見하고 國策으로 採擇될 各閣僚의 諒解를 求할터이다 따라서 政府로서는 벌서 一日이라도 速히 國策閣議의 再開를 希望하는바인데 다만 殘存한 問題는 國策豫算의 概算 一般豫算의 編成方針을 支配할 陸軍豫算의 全貌가 아직 判明되지아니한것과 所謂 電力統制案의 實施方法에 關한 閣內意見의 不統一이다 [illegible] 國策閣議의 再開를 [illegible] 廣田首相으로서는 可及的 今月中에 國策閣議를 開催하고 即決을 期하고잇는데 問題가 紛爭되면 來週中의 再開는 困難할는지도 모른다

電力國策圍繞코 首相、딜렘마에陷入
軍部는遞相案積極支持

【東京電話同盟】電力國策에 關하야 爲先內容檢討는 뒤로돌리고 먼저 이른바「民有國營案」의 遞信省案에對하야 閣內에도 相當한 異論이 잇는데 廣田首相으로서는 通性잇는 名稱으로고처 右를 正式으로 國策項目으로 決定하야 國策閣議의 再開를 빨리하기爲하야 實施方法에 關해서는 項目決定後에 다시 檢討할方針이다 따라서 電氣事業을 어떠한 形式으로 統制하려는 方針은 決定되려이나 遞相이 固守하는「民有國營案」은 반드시 實現되리라고는 아직 決定되지안흘터로 前田鐵相, 島田農相, 平生文相, 永田拓相, 潮內相間에 現行電氣事業法의 運用强化論, 又는「民有民營」의 形을 남기고 特殊會社에 依한 統制强化案等의 代案이 相當히 有力하게 考慮되고잇는데 遞相이 果然如斯한 代案에 同意할는지 極히 疑問이며 그리고 政友會의 反對는 如何를 遞相案에 對하야 民政黨內部에 反對論이 잇는것은 遞相의 立場을 極히 不利하게하는것이며 萬一民政黨이 正式으로 反對할境遇에는 政府로서도 當然 이를 採擇할수업게되어 遞相案의 運命은 民政黨의 態度如何에依할바 多大하다 軍部는 陸軍으로부터 當初부터 强硬히 遞相案을 支持하고잇스며 遞相案의 成否는 軍이 重大關心을 갓는 統制經濟의 確立에 關한 一種의 試金石이라고 보이므로 萬一 이것이 財界, 政黨의 反對가 反映하야 撤退化하는 일이 잇스면 寺內陸相은 斷乎한 方針으로서 뭇까지 國營案實現을 支持할것으로 보이므로 이사이에서 廣田首相은 極히 困難한 딜렘마에 陷할 憂慮가 濃厚하다

大野新總監着任
即時初登廳、各局課長과面接

新政務總監大野綠一郎氏는 二十二日朝 釜山에 到着하여 臨時特急에 乘車 午後三時十分 京城驛第二番에 到着하엿다 驛에는 小磯軍司令官、三宅第二十師團長、總督府各局課長、軍部諸將星、官民有力者、諸團體等 約二千名의 盛大한 出迎이 잇섯다 大野新總監은 春田京城驛長의案內로 貴賓室에들어가 少憩後 同三時三十分 自動車로 朝鮮神宮에 正式參拜 着任을 奉告한後 總督府에 初登廳하야 總監室에서 各局課長 所屬官署長의 面接을 밧고 同四時부터 第一會議室에서 職員一同에對한 着任人事를 兼하야 約十分 一場의 訓示를하고 大和町官邸에 들어가 着任第一日의 日程을마첫다

스테이트멘트發表

【釜山電話同盟】新任朝鮮總督府政務總監大野綠一郎氏는 夫人同伴 東京까지 出迎한大竹內務局長 下關까지 出迎한 土師慶南知事 兵頭慶南警察部長 天谷秘書官等을 帶同하고 二十二日朝 關釜連絡船으로 釜山에 上陸하엿다 田中警務局長을 爲始하야 各官衙公職者 靑年團 愛國婦人會員 多數가 堵列歡迎하는中을 一一히答禮하면서 一旦 棧橋貴賓室에 들어가 官民有力者와 산뎃잔을들어 最初의 交驩을하고 盛大한 歡送裡에 同七時發 臨時急行列車로 一路京城에 向하얏는데 同總監은 如左한 스테이트멘트를 發表하엿다

今回大命을拜하고 南總督下에 政務總監으로 責任을지게되엇슴은 나의光榮 또欣快하게 역이는바이다 多幸히 微力을다하야서 奉公할 생각이다 施政大方針은 總督으로부터 指示가잇슬터이어니와 그根本精神은 御 [illegible]

南新總督
今朝東京發赴任
스테이트멘트發表

【東京電話同盟】南朝鮮總督은 二十二日午前九時 東京驛發 官民多數의 餞送裡에 赴任途上에 올랏다 二十二日은 山田에서一泊 二十三日은 伊勢神宮 橿原神宮 桃山御陵等에 參拜하고 新任奉告를한後 同夜는 京都에서 머물고 二十四日京都(或은大阪)에서 宇垣前總督으로부터 事務引繼를맛고 二十六日午後三時十分 京城에入할豫定인데 赴任에압서 談話의形式으로 左의스테이트멘트를 發表하엿다

스테이트멘트

前總督宇垣閣下의 練達한 施設과 不撓非凡한 努力과에依하야 疆內의 人心은 安定되고 産業經濟의 開發은 實로赫赫하다 不肖 總督의 大命을 拜受한 以上의 御聖旨를 奉體하야 此等先輩各位의事績에對하야 一層 其伸張充實에 努力하야 民力의 發達、康福의增進 産業貿易의 發展을 圖하고 더나아가 內鮮融和의 實을擧하야 一視同仁의 聖旨에 奉副하려고 思하는바이다 [illegible] 一段의 進展을 期하지 안흐면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決코 官吏의힘으로만 되는것이 아니오 官民協力 南總督閣下의 指導下에 邁進하여야 이目的을 達할줄안다 實로 이意味에서 朝鮮官民各位의 努力을 希望하는바이다

人事·集會

▲魚潤氏(魚潤眼科醫院長)開業人事次로 本社來訪

八面鋒

◇ 國策閣議는 또 來週에도 열기가 어려우리라고、百年大計가 하루아침에 되기는困難。

◇ 國營案이 統制案으로 變하야도 內容은 變치안는것이 電力遞相의말슴。

◇ 骨肉相爭하는 西班牙內亂을 에워싸고 英佛伊獨이 [illegible]

◇ 見物자喜에 어룬이干涉하다가는 오漏里가 식그럽게될 念慮도不無。

◇ 「레코-드」를 [illegible] 發明에成功하엿다고。

◇ 流行조와하는家庭에서는 차라리 流行品을 사지말고 기다리는것이 流行의最尖端을 占領하는方法이아닐가。

叛軍要衝코르도바 政府軍이奪回

【바르셀로나二十一日發同盟】西班牙政府側의 放送에依하면 政府軍은 二十一日午後 南部要衝 코르도바都를 奪還하엿다한다 코르도바都는 叛軍側의 重要根據地 세빌리아市의 東方百粁의 地點에잇는바 코르도바都占領으로 政府軍의 세빌리아進擊은 크게 有利하게 展開되엿다고 觀測된다

白頭山探險記
社會奉仕丹誠은 本社의一貫精神
徐 椿

本一篇에 잇서서 余가 目的하는바는 (一)朝鮮日報가 白頭山探險의 壯擧를 計畫實施한 精神은 어디 잇섯는가? (二)隊員各個人의 處地로보아 白頭山探險에는 어떠한 物的準備와 精神的用意가 必要하냐? (三)團體旅行의 初計畫과 實際와는 얼마나한 相違가잇섯느냐? (四)我觀白頭山은 어떠한것이엇든냐? (五)金은 白頭山 갈수인 白頭山을 알프쓰 또는 富士와가치 公開하려면 어떠한 施設이 必要하냐? 等等 다수가지를 主로 叙述하는 同時에 十日以上의 團體旅行에 잇서서의 逸話거리까지도 加味해 보려는것이 主要目標다.

朝鮮日報社는 特히 革新以來 四年間의 朝鮮日報社는 여러가지로 犧牲的大事業을 만히 해왓다. 巨大한費用을投하야 新聞展覽會及文字普及의 大事業을 始作하야 그러한大成績을 내인것이라든가, 莫大한 救濟金과 物資를 救濟事業에 作하는 不少한 費用을 支出하야 再昨年 三南一帶及 大阪在住二十萬同胞의 水害救濟事業을 實行한것이라든가, 朝鮮新聞界에 新式武器飛行機를 利用하야 隔離地救濟品輸送, 新聞空輸飛行及 隔遠地方니-쓰取材에 使用하는 嚆矢를 만든것이라든가 等等은 다 우리 朝鮮日報의 民族社會를 爲한 犧牲的大事業으로서 資本主義社會에 잇서서 歎聲을 엇어 노코 大富豪일지라도 一個人의 힘으로 敢及할배가 아니요, 오직 法人의 性質을 띈 社團 又는 財團만이 行할수 잇는것이오, 비록 法人의 性質을 띈 社團又는 財團이라고할지라도 우리朝鮮日報와가티 歎聲을 엇어노코 오직 民族奉仕의 一念에만 불타는 機關만이 實行할수잇는것이다.

此一言은 一見, 我田引水格의 自畵自讚格인 嫌이업지 안흘것이나 我田에 引水가 잇고 自畵에 自讚이 잇는 곳에 進步가 잇고 發展이 잇는것이다. 그러므로 自功不言主義로 有史以來第一位를 占하는 孔子도 吾道는一以貫之라는 말이 잇섯고, 孟子도『하늘이 이百姓을 살지 아니려면 모르거니와 萬欲生此民인데 當今之世하야 나를 노코 누구를 擧하리요』라는 말이 잇는것이다.

朝鮮日報社의 今番探險計畫은 朝鮮日報가 이것을 計畫한 根本精神에 잇서서는 前記諸事業보다 更一層 上位를 占하는 民族的大事業인것을 確信하고 莫大한 費用과 許多한 障碍를 무릅쓰고 斷行한 大事業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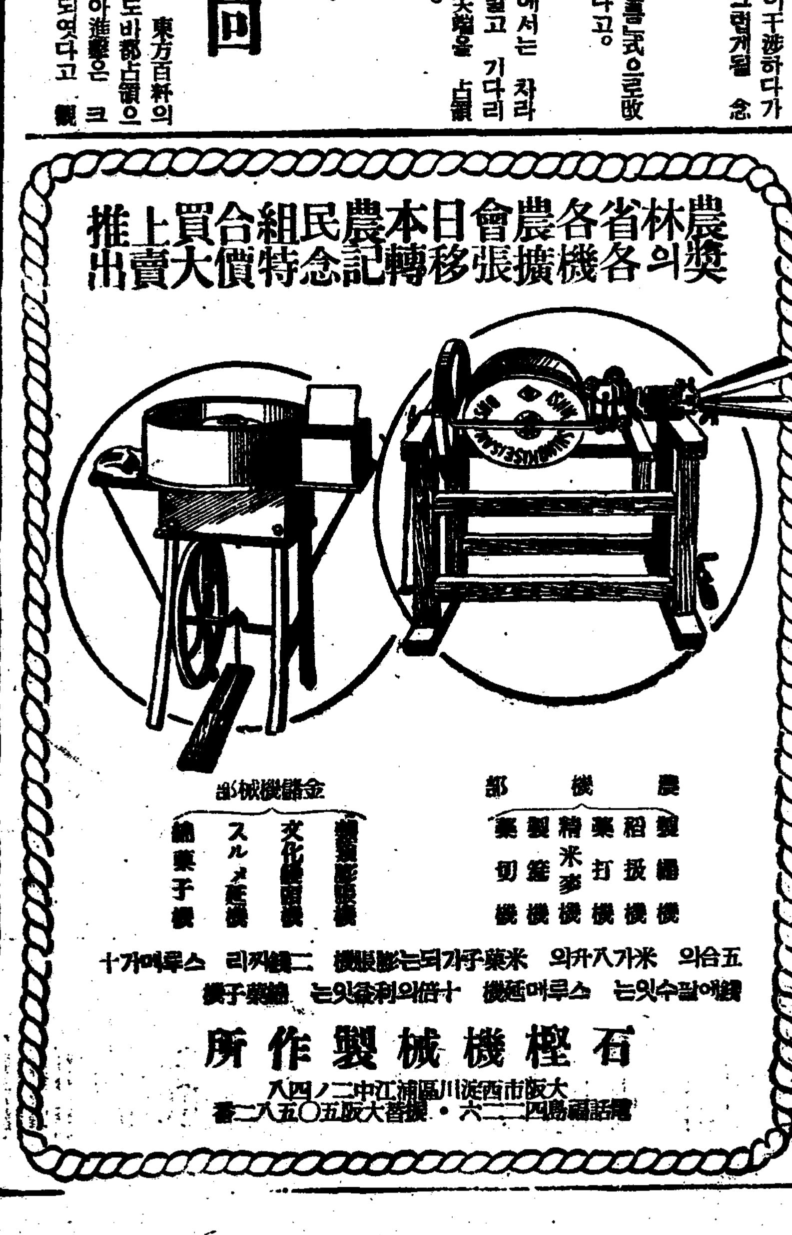
白頭山은 우리 朝鮮사람으로 보면 民族發祥의 傳說과 깁흔 關係를 가지엇슬뿐만아니라, 朝鮮이라는 領域의 境界上으로 보아 他國領土와의 國境線이 되여잇는 關係로도 白頭山으로 漢拏山까지는 一句는 三尺童子의 腦裏에도 깁히 印象되여 잇는山이다. 그뿐 아니라, 火山地帶의 標本的價値를 가진 白頭山은 地質學上으로 世界的研究價値를 가진것이오, 또 高山植物 또는 動物의 分布에 잇서서도 世界的價値를 가진 山이다. 따라서 近年에 와서는 멀리 英國사람, 獨逸사람까지도 (숨은 科學的價値를 차저서 登山하는者가 續續함을 不拘하고 잇는 白頭山의 主人인 우리朝鮮사람들은 冒險心의 缺如와 探査熱의 微溫으로 足跡을 敢踏하는者가 曉天의 별가티 드므러 왓든것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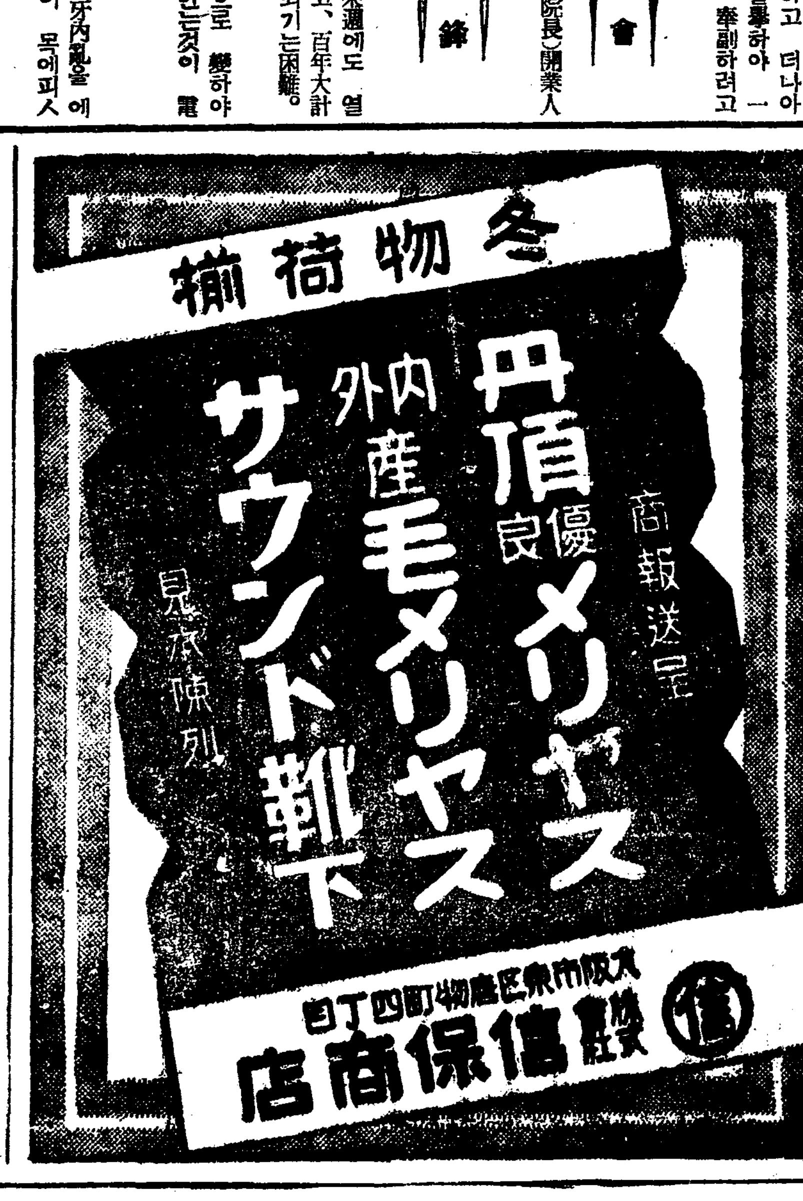
今日의 人類文明은 山探險、海探險의 蓄積以外의 아모 物件도 아니다. 新大陸의 發見은 콜럼버쓰의 海冒險의 結果가 아니엇드냐? 알프쓰를 넘어서 伊太利를 征服한것은 나폴레온의 山冒險의 所賜가 아니엇드냐? 人類의 交通機關이 今日과가티 發達된것도 그 淵源을 살펴보면 結局 우리人類가 山과 바다를 征服하려는 熱意의 所賜가 아니엇드냐?

人類文明이 山冒險, 海冒險의 蓄積이지라, 따라서 今日 世界의 主人公은 다 山海冒險에 長한 民族들이다. 英國을 보면, 獨逸을 보면, 露國을 보면 그 거러 온것이 아닌것이다.

南極探險과 北極探險에 까지 朝鮮사람의 足跡을 남기고야 말려는것이 우리의 民族的一理想이다. 그 理想을 達하는 第一步로 우리는 바로 가까이 境內에 잇스면서 幾萬年을 숨기어 잇는 白頭山의 (숨은 姿態)를 들어 내고저하야 朝鮮日報는 莫大한 費用과 許多한 困難을 무릅쓰고 江湖有志와 더부러 白頭山探險의 壯擧를 企圖한것이엇다.

(寫眞은 白頭山絶頂과 및 거기 노힌 天池(=龍潭))





祝福바든廿三日! 處暑이자七夕날

月給바든이튼날이며空日날 成熟의節候、思索의고개

이십삼일은 음력으로 칠월칠석이로서 칠석(七夕)이자 처서(處暑)이며 일요일인 이십삼일을 이를지내고 또 마침공일날이다 칠석은 천상에서 은하(銀河)를 사이에두고 동서로 떠러저서 서로 바라며 만날날만 그리고잇든 견우성(牽牛星)과 직녀성(織女星)이 삼백륙십오일만에 오작이 노흔다리를건너 서로 맛난다는 전설이 잇서 유명한날로서 처녀들은 바느질을 잘하게하여달라고 견우직녀성에게 제사를 지내며 선배들은 시회를열고 두별을 글제로걸고 시롤올펴서 비록 전설이나마 집짓그들의 만남을 축복하여오든날이다 그리고 이날에는 폭의쇄서(曝衣曬書) 라고하야 지리한 장마끄테 누지친옷과책을 볕에쪼여 말려삼동날준비를하는 일이전해온다 처서는 더위하고는 하직하는 절후로서 인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을철이다 나무입새는 한입팔 두입팔씩 떠러지기시작하고 아침저녁으로 선들선들한 바람이 불어 일반가정에서는 겨울준비에 바쁠때이다 벌레에 귀뚤이가 귀뚤귀뚤노래하고 중천에 달이밝을때 먼곳에서 들려오는 옷다듬는 방망이소리는 나그내의 마음을 한없이 감상의 구렁으로 모려너흘때이며 농가에서는 벼이삭이 나와서 섬섬한동안 겨우내때일 시탄준비에 밥분때이다 그리고 삼복성염에 들복겨서 얼마동안 접어치웟든 교과서(敎科書)를 꺼내들고 보통학교에、또는 고등보통학교에、대학에 배움의 길을 자저들엇고 수만흔 독서자(讀書子)들도 교허에달려든 신량(新凉)을 따라 등화(燈火)를 갓갑게할때는왓다 감상(感傷)의가을、추억(追憶)의 가을、사색(思索)의가을、그리고 또 성숙(成熟)의 가을 수확(收穫)의 가을이다 주리며 배고푼 이땅의 산과 들에도 익을것은 익고 떠러질것은떠러저서 보기만해도 배가 불러질때는왓다 (寫眞은仁川海邊의秋色)

拳銃들고時局標榜 現金五十圓强奪潛跡

지난十六日 밤중에堤川郡錦城面에出現 犯人踪跡은 아직도五里霧中

【堤川】 지난십륙일밤중에 제천군금성면적덕리(錦城面積德里)부호 박창규(朴昌奎)씨집에 권총을휴대한 강도가 돌입하야 금오십원을 강탈하야간사건──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기 박씨가길히잘든사이에 강도가 침입하야주인을깨워 나는상해가정부(上海假政府)에서 군자금을모집하려온 사람인데 당신은이곳의 부호임으로 삼천원을예산하고 왓스나 때가때니만치 천원만내라고 하며 내동지가 이곳 금수산(錦繡山)에 백오십명이잠복하고잇스니 경찰에고소 혹은토놋흔안내노면 분독이죽이겟다 고권총으로 위협하야 현금오십원을 강탈한후 유유히 행방을감추엇다 이급보를접한 당지경찰서에서는 즉시형사대가 총출동하야 범인수사에 혈안으로맹활동중이나 아직까지 범인에 행방은 묘연하야 전연오리무중이라고한다

이원을 절취한 사실도 자백하엿다 다른범죄도 잇슬듯 해서 취조중이다

계속하야 엄중히문초하는중이다

殊常男女留置

이십일일 오후 여섯시오십오분경에 시내와룡정(臥龍町)파출소 부근을 배회하고잇는 수상한 식물남녀 두명을 경관이붓잡아다가 방금 종로서에서 취조중인데 그들은 남도 보녕군(保寧郡)에서올라온 김경태(金景泰)(二○)라는 농민과 신정숙(申貞淑)(二○)이라는 녀자인데 요사히 애상(哀傷)의가을 바람을타고 출분하는녀자가 만흔만큼 이녀자도 전긔남자에게 유인되엿은 혐의가만허 계속문초중이다

解決될希望업고 罷業團形勢險惡

檢擧된十八名은留置取調中 大田郡是製絲職工罷業續報

【大田支局電話】 속보=대전군시제사공장의 남녀칠백여명은 이십일일아침부터 또다시 동맹파업을하엿슴으로 대전경찰서에서는 당초부터 주목하야오든 직공가운데에서 선동자로 또는 주력부대로보이는 녀자직공 십팔명을 검거하야 류치식혓다 그러나 직공들의 태도는 의연강경하야 최초의요구와가티 직조부감독 삼키외두명을 해고식히지아니하면 도저히 취업할수업다한다 이와가티 칠백명직공의 태도가강경함으로 이제는공장측에서 긔만수단을 고집하지말고 참으로 문제해결의 성의를가지고 직공에게 온정적태도를 보이지안는이상 동맹파업의 해결은 좀처럼 보이지안는중이며 공장내외의경계도 의연계속하야 공긔는 더욱험악할뿐이다

開城强盜逮捕

無職者姜在烈로判明

【開城支局電話】 지난십사일 오전세시에 개성부북본정(開城府北本町) 고리대금업(高利貸金業) 하영록(河永祿)씨집에 침입하야 식도로서 협박하고 돈 일백이십이원여를 강탈도주한 범인은 그동안 개성경찰서에서 필방으로 수사중이든바 이십이일 오전[illegible] 개성부 남산정(南山町)조선료리점 영춘관(迎春館)압길에서 붓잡앗다 범인은 개성부 경정(京町)사십이번지에 사는무직자 강재렬(姜在烈)(二○)이며 가저든금품도압수하엿다한다

犯罪[illegible]에는 亦是계집이잇다

범인 강재렬은 오년전부터 개성부내 만월정(滿月町)모재목점에서 집금원(集金員)으로 잇든중 영춘관 료리집에잇는 기생 윤화중선(尹花中仙)에게 반해서 자조 놀러다니는동안에 수금하엿든 이백원을 소비 한닷으로 쫏겨나온뒤 도적질을 할계획으로 현대식 탐정과학(探偵科學)을 사서 교묘한범죄방법을 연구하엿다 그래서 지난십사일새벽에 하영록씨의집에 드러갓슬때에도 지문(指紋)하나도 남겨노치안코 도주하야 그길로 함경도방면으로 가서 피해잇다가 사흘전에 윤화중선을 맛나고시퍼서 개성으로 도로도라왓다 그리하야유까다를입고 일본내지인처럼 꾸며가지고 이십이일 오전한시에 영춘관으로윤화중선을 맛나려가다가 개성경찰서 리(李)길전(吉田)두형사에게 드디여 범행한지 팔일만에 붓잡히게 되것이다 그는 지난 십사일밤 개성부북본정(北本町)리해문(李海文)씨의 집에 드러가서 [illegible]시계한개와 현금십

외상갑술橫領

시내아양정(安養町)백삼번지 박춘자(朴春子)(二○)는 금년정월부터 신당정(新堂町)사백이번지 리정락(李淑洛)의경영하는 무학정유점(舞鶴精油店)배달부로 잇든것을기화로 칠월이십일경에 고객십여집으로부터 외상륙십여원을 수금하여가지고 도망질하야 이래시내각처를 도라다니며 잠복하고잇다가 이십일저녁여섯시쯤되어 소관동대문서원이 발견체포하엿다는데 그는전과이범의상습자라고한다

매독 심하게돈허비되는 매독내복약 林스피로찐 定價五円 七円 京城東大門通一ノ五 大同藥業社

罹災民의家屋 卅戶를新築

全州府의救急策으로

【全州】 전주부에서는 금번수해로 전주천변에다 "천막"을치고 수용중이라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최근전북도에서건축비일호당 십오원씩 삼십호가량이나왓슴으로 서정산미례 약구십여평가량을 매입하야 이곳에다 신축키로하엿다고한다

三南水害救濟 義捐金이遝至

【高原】 금번삼남수재(三南水災)라면、세상이다 아다십히 삼십년래 희유의 비절참절한 분위기를 넘고잇다 함은 본보지상을통하여 잘 보앗거니와 이에 동포애에 불타는 뜨거운 동정으로 우리고원유지제씨들은 참상에까지 헤매는동포에게 구제코저성금(誠金)삼십원이십전을 제일회로 하루바삐 물리리에쪼거잇는곳으로 보내달라고 본사고원지국(本社高原支局)에 위탁하여 발송하엿다한다

거스름돈詐欺

이십일일저녁여섯시쯤되여 시내종로이정목구십팔번지 신선호(申善浩)의담배가게에 나이스물네다섯되여보이는 사나히가 낫하나 피존다섯갑을사고 십원짜리가잇스니 거스름돈구원오십전을 먼저내달라고하야 바다너코는 그냥어롱어롱하야 도망질하고말엇는데 소관종로서에서는 범인을엄탐중이다

問題만튼平壤西城里 地主借主또對峙

집을헐려하매千餘住民蹶起

【平壤支局電話】 작년겨울에 종래평양부 서성리(西城里)이십구번지 일대토지에 래한평에 팔전식하든 차지료(借地料)를 돌연그구배나되는칠십전으로 올린관계로 지주와 차지인과의 사이에 문제가생기여지난사월에는 지주가 강제로 집을 허러내려고 하야일시큰소동을 일으키엿든 평양부서성리(西城里)이십구번지 일대토지소유자인 오경수(吳景洙)는 이십이일 오전열시 오십분쯤하야 또다시 전 토지우에 잇는집을 강제로 허러려고 인부를데리고 갓든바 그곳 사십칠호에 일천여명주민들은 집을헐려면 우리들을모다 죽이고 헐라고 하며녀자들은 지주오경수를 포위하고뭇매를주려함으로 오경수는 간신히피하야 그근처파출소에 사실을고발하엿다 파출소원들의 제지로겨우 주민들은진정되엿는데 차지료를 중간에두고 이문제가장차어떠케 락착될지 자못일반의 주목을 끈다

南京軍官校事件 四五日內로送局

韓禹澤外七名의取調一段落

【平壤】 작년겨울평남경찰부고등과에서 검거한 군관학교(軍官學校)사건은 그동안 장뢰(長瀨)부장이 취조를 진행중이든바 거의 취조가 끗낫스므로 사오일중에 일건서류와가티 송국하기로되여 의견서(意見書)를작성중에잇다 이사건은 중국남경(南京)에잇는 군관학교를 졸업한 정성언(鄭成彥) 한우택(韓禹澤)외일곱명이 상해(上海)북간도(北間島) 조선(朝鮮)각지에서 련락을취해가면서 조선○○운동에 분부하든것으로일년간가운동안 취조를밧다가 근일에야 일단락을보게된것이다 사건의 관계자중에는 미체포자로사오명이 잇서 취조를하는 일방 수사도 의연계속되고잇다 한다

아침에나갓든留置場 저녁때에다시歸還

아침에 류치장을 나간도적이저녁에 도범죄를하고 그류치장으로 돌아오는 할수업는 도적=전라북도익산군팔봉면팔봉리(益山郡八峰面八峰里)에 본적을둔박동욱(朴東旭)(一○)이라는 소년절도는 얼마전에 시내종로서 류치장에 류치되여 취조를맛고잇다가 이십일일아침에 특히 관대한 처분을바더 석방되엿든데 또 그날오후아홉시 오십분경에 동대문에서 경천가는 전차속에서 시내창신정(昌信町)사백륙십번지의 심일호 량윤직(梁允植)의 현금삼원오십전이 들어잇는 지갑을 빼엇다가 현장에서 지갑임자에게 붓들려도다시 소관 종로서 류치장으로끌려왓다

責任者處分을約束 겨우一名만解雇

工場側의無誠意에職工은憤慨 다시罷業한裏面事情

就業은햇스나 空氣如前不安

지난이십일 공장측에서 직공에게대하야 그대들의 요구조건중 김두섭은 해고하얏고 남어지두사람도 충분히고려한후 선처하야줄터이니 직장에드러가 일을하라고 권고함으로 칠백직공중 약팔할은 취업하고 남어지는여러날 잠도자지못하고 싸우느라고 연약한몸의 고달품을 참지못한사람도잇고 원만히 해결식혀주지아함에 격분하야 취업하지안흔 사람도잇섯다 그럼으로 직장에 나아가일하는 직공들의시 일이손에재펏슬리가 업스니 그들은 그날오후부터는 일을하다말다하얏다 그들은 마침내태업상태에까지이르게되어이십일은 이럭저럭 하로동안을 보내고다시침실로 드러갓스나 그들가운데 잠을편히잔 사람은 한사람도업섯고 어덧케하면 이를해결할수가 잇슬가하야 초조히지낫다고한다

欺瞞政策發露 再起한罷業團

공장측에서 충분고려한후 선처하야준다함은 전향에 보도한바와갓거니와 이것이량심에서나온 타협이아니엿섯고 순전히 그들을취업식히기 위한일시 기만정책이엿다이를알게된 그들은울한분 생각이새삼스럽게 가슴을치밀게 되얏다 전날일시적으로취업하얏든것도 일장춘몽으로 도라가고 또다시구든 결속으로 파업의 봉화를들게되야 이십일일부터는 몽몽하게 나오든연돌(煙突)우의흑연이살아지고 요란스럽게돌아가든 기계소리도 일제히 정지되엿스니 이것이 재파업이 일어나든날이다

退社命令하고 간다면못가게

파업한지가 벌서사일이경과하게되고 사태가지구전으로 드러가게되자 공장측에서는 그들에게 강경한태도를 보이기위하야 일을하지안흘테면 나무밥만*먹지말고 너의집으로 모다돌아가라고 명령하자 직공들은 전부짐을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겟다고 문간으로나가자 그들이 의외로 태도가 강경함에 대경실색한 공장측에서는 문을 굿게닷처버리고 박갓트로 내여보내지안는다 공장측의 해석할수업는행동에 녀공들은 기가 맥히는지 문간에우둑커니서잇자 간부들이 다시나와서 할말이잇스니 조금들어오라고하야 드러가보니 또한문제를 원만해결식혀줄성의는업고 다만히 가지모하게방위하는 수단인것을 알게된 직공들은 왜가라고하고 간다면 못가게하느냐고 야단법석이일어낫다고한다

警察干涉開始 主動者等檢束

파업이 시작되든 지난십칠일부터김ㄱ를 등한히하지안튼 대전경찰서(大田署) 정사복경관대는 그동안공장내외를 철통성가티경계하게되야 밤에는 철야하야 가며마일을 방위하고 잇섯고 작보한바와가티 고원서장이 직전나와 조정(調停)하게 되얏스나도모지 해결의 방도가업섯다 직공측에서는 폭행한 세사람을해고식히기전에는 절대로 일할수업다고하고 공장측에서는 전기세사람을 전부해고식힌다면 직조부(織造部)는 일을하지모하게될뿐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전부 드러주면 압호로도 악례(惡例)가 남게되야 직공들이 불평만잇스면 의례히 파업하라라는것이다 량편이서로 량보하지안는한 해결의 길은업고 공기는 점점험악하야감으로 경찰은마침내 이십일일 오후네시경 소방조(消防組)자동차와 경찰서자동차로 녀직공십팔명의검속을 보게되얏다

面會온父母들 落淚하며歸去

공장에서 녀공들을란타하얏다는 소식을 듯고 공주(公州)를 논산(論山) 연기(燕岐)등지에서그들의귀여운딸의 안부나알고 얼굴이나 한번보랴고 차저온부모형제들은 굿게다든 공장문박게서 면회를청하면 "안된다"는 한마듸로 거절을당하고 공장문압헤 남녀로소할것업시 모혀서 수근거리며 공장안만드려다보고섯다 공주에서왓다는 직공 ×례(×禮)의모친되는 김씨는공장안을드려다보고 사람때리는이놈의공장하고 고함을칠지음에 자동차두대가낫타나더니 공장안으로드러가 머리를 수건으로짜맨 녀공과 빵에붕대를감은 녀공등 알곱의중병자를ㄱ고 병원으로질주하는것을보고 그자리에 주저안는 어머니도잇섯다 그리고조곰잇다가 경찰서자동차와 소방조자동차두대에 정사복경관을만재하고 공장안으로 드려가더니 아리따운 새악씨들을 경관들이 자동차에 자비실고 경찰서를향하야 다름질하자 녀공들은 소리를지르는자도잇고 우는자도잇섯다 (大田支局一記者)

朝鮮體育會綜合大會 全朝鮮水上競技

九月五日부터開催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七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水上競技는 來九月五、六兩日間 京城府營풀에서 開催할터인바同大會의 參加規定은다음과갓다

◇參加別=中等學校對抗 一般部

◇參加金=中等部金三圓 一般部金五十錢(但本會聯盟會員及審通會員은免除)

◇競技種目=(自由型)百米 二百米 四百米 八百米 (平泳)二百米 四百米 (背泳)百米 二百米 (繼泳) 二百米 八百米 메드레릴레ー

◇採點方法=一着七點 二着五點 三着四點 四着三點 五着二點 六着一點 繼泳은各倍點

◇入賞=各種目一着者에限함

◇參加方法=一校一種目二人以內 一般은二種目以內

◇申請期限=九月二日午後六時까지 京城府鐘路一丁目四六 朝鮮體育會로 申請할것

女子卓球招聘

全日本女子卓球軍招聘 對抗戰 一日은 二十二日午後一時부터 當社民新中講堂에서 擧行한바 當日夕刊마음까지의戰績은다음과갓다

【全日本軍】		【聯合軍】
○保原	3……0	吉田×
○西山	3……0	小出×
○勝山	3……2	韓慶霞×
○眞田	3……0	鹿島×

滿洲陸上軍入京

明二十三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全朝鮮軍과 對戰할 全滿洲陸上競技團一行四十名은 監督西貞一氏引率아래 十分京城驛着列車로 入京하엿다

漢江行電車"殺人"

昨日午前、午後에兩件發生 金曜日은事故데—

이십일일 시내본정서 관내에교통사고 희생자두명──

◇오전여섯시이십분경 시내례지정(禮智町)이백오십오번지 최규명(崔奎明)(二五)의 운전한백칠십사호 한강행전차가 남대문통사정목 십칠번지압헤 다다랏슬때 길을 건너랴든 삼십오륙세되여 보이는 사나이가 부듸처 혼도되것을 곳부근「세브란쓰」병원에 담어다가 응급치료를하엿스나 의식이 회복되지 못한채 이십이일오전령시반에 드듸여 죽고마럿는데 주소성명도 전연알수업스며 시체는 그병원시체실에 지금보관중이나 의심스러운이는 그병원으로 무러보시기바란다

◇인천부 화정(花町)일정목사십삼번지 전천(田川)"아사"(二○)는 오후네시반쯤되여 한강행전차가 명치정입구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전차안에서 넘어진채 인사불성이되여 부근산구병원(山口病院)에담어갓스나곳 죽고마럿는데 원인은 뇌일혈이라고한다

大文鑛山爆發

一名卽死一名重傷

【平壤支局電話】 이십일일 오후여덟시쯤하야 신조선무연탄주식회사대문산(大文山)탄항에서는항부들이 석탄채굴작업을 하고잇든중 별안간 화약이 폭발되야 항부 김희원(金希元)(三○)은 즉사하고 리원경(李元敬)(二○)은중상을당하엿다 원인은 폭발되지안코 남어잇든다이나마이트를 아지못하고 광이로 찍어서폭발된것이라한다

超特急貨物車運轉

철도국에서는 오는십이월일일부터 "따이야"를 전부개정하는동시에 초특급화물렬차를 운전키로 되엿는데 운전하기전에 우선시운전을 하기로되야 오는이십사일부터 이십륙일까지부산(釜山) 대전(大田)간대전신막(新幕)간신막 안동(安東)간에서 그렬차시운전을 할터이라고한다

無錢取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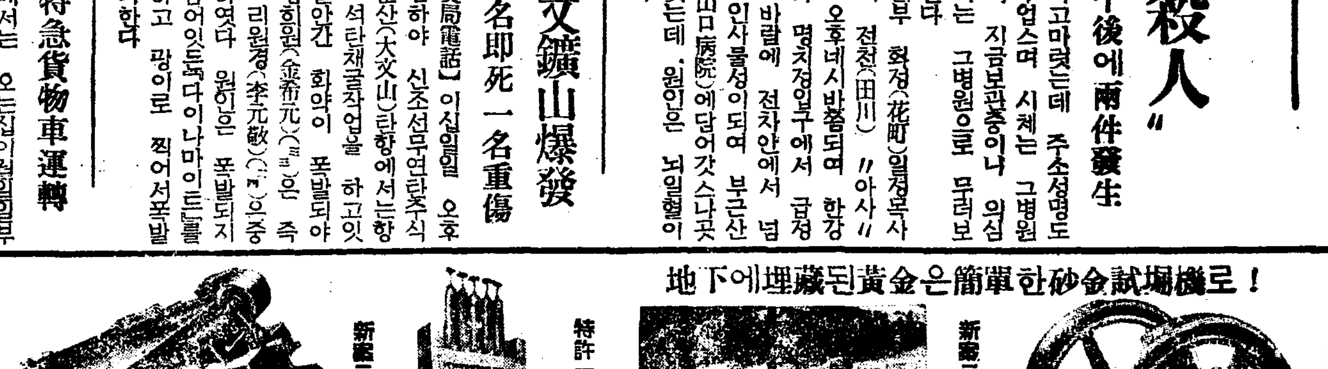
이십일일오후 열한시경에 시내인사정(仁寺町)구십번지상술집에 시내인의정(仁義町)사번지 김용규(金容圭)(二○)는 술을무전취식하고 도망가고 전과김등세명이칠원어치술을 무전취식하고 용케만은 소관종로서에서 검속되엿다

天氣豫報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개이고 一時는 흐린다 明日도가트며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二八度八
同	最低	一九度
今朝	最低	一八度九
今日	正午	二六度六

地下에埋藏된黃金은簡單한砂金試堀機로!



新案二二七二四〇號 特許一一二〇三九號 新案二三一二七號 京城府中林町 電本局八ノ三四四〇番 朝鮮鐵工所

紳士用 最高級自轉車 二年保證

名実共ニ日本一 グレヤー ガイセン ビクター オリエント ¥95.00 ¥85.00 ¥85.00 ¥85.00

神戸市 南國鉄工所 朝鮮一手販売店 京城府 東亜輪業株式會社

釜山 T.F テント カンバス 福岡商會 釜山府南濱町一丁目 電話二一二九八 (カタログ進呈)

간질 日光製藥社 京城府鍾路四丁目

말더듬이 訥言研究矯正院 京城西界町

밀리온레코-드 第一回巨彈 新譜陣容 新民謠 靑春은간다 金時動 流行歌 春怨 李銀波 자ー즈 歡樂의거리 李想春 코믹도 노래니전파꼬리 崔昌仙 流行歌 못니즐追憶 羅惠淑 鮮洋 大邱아리랑 崔桂蘭 伽倻琴、大笒、合奏 姜太弘 朴鍾基 外 高一心、鍾素玉 李暎山紅等 一流絶唱歌手傑作盤十餘種空前의大進出 今二十一日發賣

セブランス醫專病院 檢眼無料 眼學生 ◎急告 京城驛前 電(本)五一二二

國成社 八月廿一日封切 每日三回 ◆코롬비아超特作映畫 片道鑑札 情熱의봄바 ◆P.C.L特作映畫 絹の泥靴 竹久千惠子 千葉早智子 細川ちか子 主演 ◆大阪朝日新聞社特別提供 올림픽第二報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結核退治를 합시다!

溺者에게는 浮囊 病者에게는 名藥 神聖堂

물에빠진자에게는 공기주머니를! 폐병환자는 나오빼一를!

인간 고해(苦海)의 희소식

부족증 폐병 늑막염엔 「나오빼一」가 제일이오

發賣元 京城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폐병 부족증 늑막염엔 나오빼一가 제일

효력엇는 세계에서유명한 신발명약제가만히 드렷습니다 폐병은 불치의 난병으로 열년사망자수가 수십만명이되는대 종래의 치료가 불완전하엿다 엇때까지는 환부의 균만죽이라고 드렷스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낫는다 살균도 필요하나 한편으로 몸도 보하고 잠식(蠶食)하는 부분을 막는법여 새로·발명되엿다 즉 살균보혈포위제지(包圍制止)의 삼작용을 석히는대 여러가지로 애를썻다 제일 약과 음석과 일광욕과 산소료법 좌흡료법등에 엇스나 마음대로 되지못한다 그런대 한가지약으로 여여러가지 작용을 일시에 다하는 참 선효한 약을 발명하엿따 즉 삼기의 중병으로 고통하는 환자도 어약을 먹거서작하야 대효본 참 신기한 약이다 이러한 자신이 엇슴으로안심하시고 별별약과、처료를하야도 안나여 고통하는분은 열서라도 속히 「나오빼一」를 꼭쓰시오 구미업고 잘체하고 거칠하고 담을뱃고 열이나고 몸이 파리하고 혈담을뱃고 피를 토하고 숨이차고 원기업고 자슴여 압푸고 열구러자 결니고수족어 찬분은 쓰서오 (약갑) 삼거용 이섭원 어기용 십원 초거용 오원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면 당일로 벼텔여 보빼드립니다

나오빼一의효능

- 肺結核(폐결핵)
- 肺結核浸潤(폐결핵침윤)
- 肺尖加答兒(폐첨가다루)
- 肺炎(폐염)
- 慢性氣管枝加答兒(만성기관지가다루)
- 肋膜炎(늑막염)
- 腹膜炎(복막염)
- 腸結核(장결핵)
- 結核性體質(결핵성체질)

약 특제 삼기용 이섭원
　 이거용 섭원
장 초거용 오원

大神聖堂의 陣容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支社

全南光州府本町四丁目六	神崎神聖堂支社
黃海道海州邑南京町一六〇	宋淳炳
京畿道水原郡邑南昌里七四	李光澤

市內代理店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新井藥房
本町二丁目	北島藥房
本町四丁目	木村藥房
鍾路三丁目	第一藥房
仁寺町	富仁藥房
阿峴町	春山藥房
南大門通一丁目	富士屋藥房
黃金町四丁目	南海堂
鍾路二丁目	白橋堂

地方代理店

仁川府外里一九〇	仁川堂藥房
忠南天安邑內	徐光年
咸南端川郡汝海津	鶴仙藥房
咸南永興郡宣興面	[illegible]
咸北漁大津	閔泳藥舖
慶南龜浦	朴基煥
咸南咸興府本町通	三省堂藥房
咸北惠山鎭水驛前	永生堂藥房

特約店

京城府淸凉里町一二九	德仁百貨商會
京畿道仁川府外里	中和堂
同 永登浦驛前	淸一堂藥房
同 金浦邑	回生堂藥房
同 始興郡新東面平原里	李鍾英
同 永登浦	[illegible]
同 龍仁郡南四面鳳鳴里	李相瓊
同 開城府都橋市	ハヤシ藥房
同 水原郡鄕南面發安市	金佑鉉
同 江華郡良道面道場里	韓仁奎
同 漣川郡南面華山里	李殷傑
同 水原邑	金德根藥房
忠南大田邑大東町四九	朴汀均
同 淸州邑	鄭北藥房
同 洪城邑豊農園	李康世
同 成歡驛前安城商店	宋千逸
同 扶餘郡良化面草旺里	高文寬
同 公州邑錦町	權明順
忠北淸州郡米院面岐岩里二〇九	華信藥房
同 溫陽邑	溫陽藥房
同 潭陽郡火田面谷城里	丁判變
同 木浦府竹洞木浦驛前	玉山堂藥房
同 海南郡邑內	千珍玉商店貿藥部
全南順天邑金谷町	金禎泰
全北金堤邑內	鄭東泰
同 井邑郡笠岩面大興里	陳善長
同 井邑郡七寶面白岩里	李廷鏞
同 茂朱郡赤裳面北倉	柳用極
同 益山郡王宮面興岩里	金永鐵
慶南京釜線勿禁驛前	大光藥舖
同 咸安郡安義面錦川里	崔再錫
同 河東邑	淸生堂藥房
同 晋州昭和町 大明堂	金三珠
同 晋州邑明治町	金元春
同 晋州邑日出町一〇九	第一藥舖
同 六二	金成藥房
同	大黑津堂
同 馬山府銀町 天和藥房	ツバメ藥房
同 馬山府石町	李館秀
同 釜山府寶水町義昌號	五行堂藥房
同 蔚山郡靑良面開谷里一六	韓明東
同 居昌邑	孫秀振
同 蔚山郡凡西面斗山里	車榮龍
同 密陽驛前	朴慶龍
同 南海	松山堂藥房
同 泗川郡西浦面舊所里	華生堂
慶北軍威郡山城面三山洞二〇六	金鶴玉
同 大邱府京町一丁目一八	朴基堂
同 尙州郡邑外畓里	大安堂藥房
同 善山邑本町	權照入
同 義城郡丑山面景汀里	金占變
	金春淑

同 [illegible]	[illegible]
同 佛國寺驛前	[illegible]
同 大邱府達城町三〇	[illegible]
同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金化邑	金化藥房
同 原州郡原州面花月里一〇四	黃化藥房
同 江陵邑內	金在店
同 金城驛前	文[illegible]
同 原州郡[illegible]	[illegible]
同 平康郡[illegible]驛前	丸[illegible]
同 鐵原邑中里	中[illegible]
同 洪川郡化村面[illegible]	金成堂藥房
黃海道載寧邑內	金[illegible]
同 [illegible]驛前	李[illegible]
同 鳳山郡德在面赤城里[illegible]	孔[illegible]
同 海州邑北旭町二五七	[illegible]五
同 信川郡[illegible]	吳[illegible]
同 延白郡[illegible]	林[illegible]
同 海州邑內[illegible]	朴[illegible]
同 安岳邑	朴[illegible]
同 [illegible]	金[illegible]
同 南川驛前	秦[illegible]
同 沙里院本町通	石川和[illegible]
平南平壤大和町通	金[illegible]
同 大同郡斧山面中二里	全[illegible]
同 肅川驛前	鄭[illegible]
同 龍岡郡海雲面城峴里	李[illegible]
同 龍井里	李[illegible]
同 安州郡立石市活貧藥房	洪[illegible]
同 平壤府南町四一柳原藥房	尹[illegible]
同 平壤府橋口町四〇	金[illegible]
平北碧潼邑內	朴[illegible]
同 潮浦線香山驛前	金[illegible]
同 龍岩浦農民共生組合	[illegible]
同 宣川邑內川北洞	安[illegible]
同 鐵山邑內	李[illegible]
同 江界郡公北面香河洞	韓[illegible]
同 熙川郡邑上洞八五	回[illegible]
同 宣川郡川南洞	[illegible]
同 新義州府彌勒洞新義州	東[illegible]
同 車輦館驛前	[illegible]
同 定州郡大田雲鶴洞	安[illegible]
同 鐵山邑內	天[illegible]
同 雲山郡北鎭市	春[illegible]
同 雲田驛前	救[illegible]
同 新義州府眞砂町	錫[illegible]
咸南新興邑內	春[illegible]
同 定平郡新上驛前	金[illegible]
同 永興郡古寧面三峰里一四七	洪[illegible]
同 豊山邑內市通義信商店	姜基完
同 長津郡郡內面上梅山里	[illegible]
同 北靑郡下車日面萬景市	[illegible]
同 新高山驛前	[illegible]
咸北城津港旭町	[illegible]
同 城津港旭町	[illegible]
同 淸津府新岩洞	海[illegible]
同 城津郡鶴南面禮洞	李[illegible]
同 朱乙驛前	北盛[illegible]
同 明川邑明川洞	新[illegible]
同 雄基港本町	迎[illegible]
咸南北靑邑壽世局	金[illegible]
同 北靑驛前	五六[illegible]
同 咸興府本町	三省堂
同 元山府南村洞二四	金元輔
同 元山府廣石洞一	東明堂
同 元山府	岩[illegible]
同 甲山郡惠山鎭本町惠山堂藥房	李[illegible]
同 興南驛前九龍里	日天堂
咸北吉州邑內	壽星[illegible]
咸北雄基上本町	十字堂
同 會寧邑大正通	世一堂藥房
同 雄基邑本町	仁壽堂藥房
同 雄基邑本町三五七	信生堂藥房
同 雄基邑本町四〇三	[illegible]
同 羅南邑初瀨町一一二	益壽堂藥房
同 羅南邑生駒町五七	錦圖堂藥房
同 城津邑旭町四一三	萬壽堂藥房
名古屋市南區中山町一ノ一八	平和藥房
島根縣美濃郡近見上村小原	片岡吉
安東縣市場通九丁目三番地第四號ノ四	永吳[illegible]
間島龍井市大通路	[illegible]生堂藥房
京畿道陵谷驛前	和[illegible]
京畿道素砂驛前	徐春[illegible]
京畿道永登浦町五三三	安順[illegible]
忠北丹陽郡上岡面金谷里	中一[illegible]
全南群山府藏財町一四三ノ二	朴[illegible]
全北裡里邑內南中町四六二	中和堂藥房
慶南馬山府富町市場	孫[illegible]
咸北明川郡下加面漁浦區內	孫龍漢藥房

支社設置引受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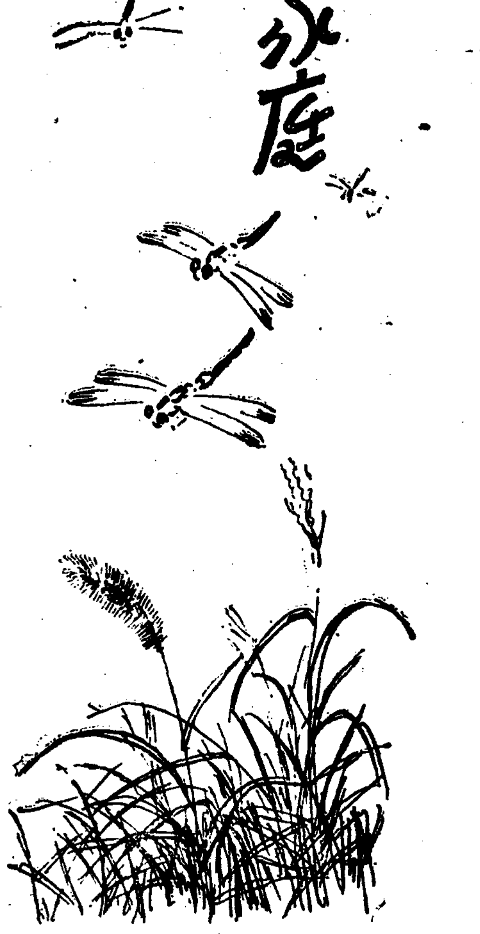
黃海海州地方 宋淳炳殿
京畿道水原 李光澤殿
決定外十數氏申込開業同時發表함

●各●道●府●廳●所●在●地에서 支社●經營하실 有力●한 新●進●事●業●家●

大特典募集支社希望이라明記하시고規定書請求次第無料郵送함

特約(약)店(점)以(이)外(외)에는 절대로 화리나특전이업습니다

京城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謹告



새삼스러운 부산……숙명녀고 긔숙사

녯사람의미신도 과학으로다시선다

무슨병에나 음식물치료가 제일 그중에서도 생식은특효가잇서

종긔가 난데를 짜개고 살이 갈라진데를 꼬매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내서 떡주무르듯 하는 것이 근대 의술의 신긔로운 점도 되지만은 무리한 억지공사를 하는데 딸아서는 몸에도 손해가 미치지 안 할리 업습니다。그러지 말고 보통의 음식물로 병을 고친다면 얼도 순편한동시 몸에도 무리하지 안켓느냐고 하야 요사이 서양서들도 근대 의술의 결함을 지적하며 소위 음식물치료를 떠들게 됫니다。고기체한데 배를 먹고 우유체한데 돼지고기국물을 먹는 것은 모도다 우리들 전래의 음식물치료입니다。상약이라고 웃읍게만 볼 것이 아니니 거긔서 배호고 어들 것만 적지 안습니다。그러나 음식물치료에도 여러가지의종류가 잇습니다。참고삼아서 거긔 대한 것을 약간 아리켜 드릴가합니다。

첫재로는 어떠한 성질의 자양분이 부족하야 병이 난 경우에 그 자양분을 섭취케 하는 것입니다。위선비타민이 그 조흔 예로 꼽히어 집니다。즉 결막간조증(結膜乾燥症)은 비타민 에이가 부족된 까닭이요 각긔(脚氣)는 비타민 삐가 부족된까닭이요 바로씨병은비타민、씨가 부족된 까닭이 아닙니까? 다각각 그 부족되는 것을 상당히 보충만 하야 준다면 애초에 병이 나지도안코 난병도 나흘것 아닙니까? 각 비타민을 다량으로 포함 하고 잇는 음식물이 업는 만큼 따로 그 것만 뽑아 낸 약제를 쓰는것이 조습니다。단지 비타민、씨만 그렇케 뽑아 낸것이 흔치안 하니까 토마토、레몬、무집 과가리 그것이 만히든 음식물을 먹는수 밧게 업습니다。

×

둘째는 그 음식물의 약물학적작용(藥物學的作用)을이용하야 병을 고치는것입니다。고기체한데 배를먹고 우유체한데 돼지고기스국을머는 것도그러한 성질의 치료나 아닌가고 의심되거니와 그이외라도 설사하는때 놋쇠을 먹는다든지 부종이 낫때 서숩치를 먹는다든지 빈혈증에 철(鐵)이나 동(銅)이 만히 든 음식물을먹는다든지 모도 그러한 치료법입니다。

세재로는 상극되는 음식물을 먹기 피하야 병이 더 치지안케 하는동시 자연히 치료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당뇨병(糖尿病)에 함수탄소(含水炭素)가 포함된 음식물을 금하고 신장염에 짠 음식을 금하는 것도 그조흔 예어니와 한의들이 흔히 식긔(食忌)라고 하야계 저주면(猪酒麵)을 금하는 것도 그 조흔 예라고 볼 수 잇습니다。

×

넷재로는 생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녯날조선서 생식을 하면 신선이 되다고까지 미든것은 우스운 소리지만은 근래 독일의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볼진댄 만흔 병의 훌륭한 치료법이 된다는것만 사실입니다。심장병 신장병 간장병 또는 제종염마의 염종(炎症)등에 아조 유효하답니다。그중에도 혈압이 노픈데와 살이 넘어찐데는 특효가 잇답니다。본래 우리조선서는 다른나라보담 생식하는 음식이 만습니다。그것도 조흔 습관의 하나라고 판정됩니다。특히 채소는생식이 조습니다。쌈생채가튼것을 장려할필요가 잇습니다

가정에필요한 『암모니아』수

한병쯤은사두고씁시다

『암모니아』수는 갑시헐하고가정상비약으로는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될수만잇다면 한병쯤 은사두는것도 대단히 조홀가합니다 그러나 간수하는데는 병마개를 꽉채워서 발산이안되도록주의하야 어둡고 싸늘한곳에 보관해두도록하십시요

◇첫재 빈대、벼룩、모기가튼독잇는버레에게물엿슬때는 그물인자리에 『암모니아』물을 바르면 아프지도안코부르트지도안습니다 그리고독잇는배암에게 물린데도 즉시 암모니아수를바르면 독이 삭어업서집니다

◇그다음 뇌빈혈을 일으켜서 깜우러첫슬때또는숫불(炭)을 피여서까스의 중독이되여 두통과 어지러운증이 날때는『암모니아』냄새를 맛도록 하던지 탈지면을 비벼서 길직하게 만들고 그것을적신다음『암모니아』물을 추겨저서 코구멍에 꼬저두면씨슨듯이낫습니다

◇빨내할때도 『암모니아수』는 대단히 조습니다『아모니아』물한방울에 보통물열방울비례로 개여서 양복가튼것에무든 기름과 때무든곳에 뿌린다음 벤진으로 빨면 때가집니다『레몬』이나 포도가튼 산성과실물이 옷에드럿슬때는 옷빗갈이 변하는것입니다 이번해버린자리에『암모니아』물을조곰발너두면 빗갈이본색으로 드러납니다 며주나 젓가튼것이 옷에떠러젓술때도 십배의물에다 희박한암모니아물로 씻치면 빠지고 땀이 흠뻑밴헌옷가튼것도 물한되(升)에『암모니아』수를 적은술잔으로 두잔쯤섞거서 그물에 한오분간만담거두엇다가 보통물에내여헤우면 감쪽가티 씻처집니다

준키가다시늘어

사람의키가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잇는일이지마는 지나간해동안에 키가작지아상이나 주려들엇다가요사이또다시 잘아기 시작하얏다는이상야릇한 사나히가 잇습니다 그는미국미네소타 노주에살고잇는『한스·존손』이라는사람으로서조선생초부터 키가작고만 줄기시작하더니 작년여름에는 한자오푼가량이나 주려저서 후리후리하면키가 그만다섯자로잘마해젓섯습니다 그리하야『존손』군은난쟁이가 되나보다하고 비관하고잇던차 이상하게도 요지음와서도다시 키가자라기시작하야 한자쯤 느러낫슴으로 그는기뻐하면서 날마다키재이는것이 일이랍니다

家庭時評……(1)

며누리로 보담도 안해로 시집왓다

장마구례

우리네의 가정을 살펴볼때 정말한심한일이 만습니다 그중에도 가정불화로 말미아마일어나는 비참한사건은 날마다신문지상에서차저볼수잇게됩니다 과도긔에잇는우리네의 모든형편으로보아이것은 새로운륜리와도덕이서지안코는 하로이틀동안에고치여지지안흘것입니다 녯날의편벽된륜리와새로운 풍조에서 흘너드러오는일반의 편념사이에 커다란간격이생겨서 가정불화가일어나다고볼수잇스나 대체로는생활의 근거가튼튼치 못하고 곤난한 까닭에 쪼들이든 남어지 그만마음에업는 불화를가저오는것입니다 가정불화중에 시어머니와 며누리사이에일어나는 충돌을볼수잇습니다 한집안의중심을모볼수잇는 그두분간에 의견이맛지안흘때는 밧갓일을보살피느라고 정신차릴여디가업는 사랑양반들은 어느사이에어떠케된지도모르는사이에 가정은비참한불화의구렁으로 들어가버리는것입니다 첫재시어머니는 옛날의륜리로보아 며누리를대할때 아들의 안해로서 대하는것이아니고다만 자긔를 중심삼고 자긔의필요에 종속된며누리로만 혜석하는것이 오늘날조선의 시어머니가가지고잇는 일반적경향입니다 그반면 며누리는 며누리대로 남편을따려온사람、남편에종속된사람으로만 생각하고잇스니 가정이평화해질도리가 업는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옛날륜리로본다하더라도 양편이조곰이라도 리해가잇고 옛도덕일지라도 정당히리해하는사람이라면 첫재며누리로말하더라도 남편을중케녀기어 남편의뜻을맛추고 남편의의견을 존중할진대 남편의 어머나 남편을나허서기른 크나큰은인인동시에 살을조개여일우어젓다는 시어머니를 중케녀이며그마음을 질겁게하여야만 남편에게도 충성을다하엿다고 볼수잇는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히편벽되게 남편을위한다는것이 남편한사람만을 념두에 둘뿐으로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하날에서 떠러지고 땅에서솟아난것가티생각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호박도 원줄기가잇서 호박이열려잇지안습니까

그러므로 남편을 섬긴다는것은 남편의부모까지도 정성껏섬겨야 된다는것을 알어야하며시어머니의 성질가튼것도 잘참작하여서 마음조토록 대하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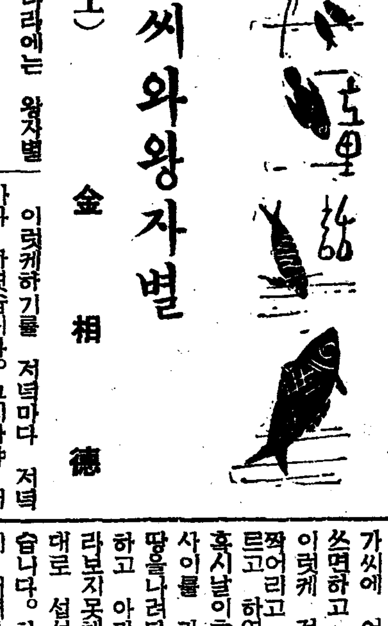
그다음 시어머니로볼때는 며누리를첫재 아들의안해로서 자긔와꼭가튼 개성과욕망을 가지고잇는 인간으로보고 아들을귀히여기시면 아들의안해로서의 며누리도 귀히여이여야 할것입니다 어른올자세하고 떠퍼노코꾸정을한다던지 구속을하며 자긔의의사대로만 옴지기게하랴는욕심을 불사려버리어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야 서로 성격을잘참작하고 개성을존중하며 서로밋고 서로양보하야 한가정의평화를 도모해가지 안흐면 안될것입니다

애기네들싸홈에 어른은참견말자

아이들 싸홈이 어른싸홈된다는 말과가리 아이들끼리싸우는데 어른이 참견하는것은 대체로 조치못한것입니다 아이들 싸홈은 대개가 큰감정이잇서서 일어나는것도아니요 손곱작란가튼것을 하다가 충돌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른과 달녀서 자존심이 여간 대단한것이 아닙니다。무엇이든지 자긔를중심삼고 지극히 리긔적으로 해석하는 편벽된 성질을 가지는것이니 이것은 재롱스러운 천진인것입니다 압도 뒤도 돌보지안코 자긔가 하고시픈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야보랴고 떼를쓰며 남이 몹시 다치엿다든지 무슨문란을 당할때는 그것을본 아이는 꼿 자긔가 다친것처롬 울며 동정하는 꼿다운마음씨도가지고 잇습니다 아이들 자긔네끼리만 가질수잇는 조고만 한노롯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른의 간섭을 대단히 실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싸홈은 될수만 잇거면 어른은 참견 하지말어야하며 형세가위험하야 간섭하지안코는 안되는때에는 양편그세를 잘보아서 조도록 해결지워주지안호면 안될것입니다 아이들싸홈이나 어른싸홈이나 싸홈지고 고비가업는것은 업습니다

무슨싸홈이든지 한고비를 지나서 조곰식지는 기미가 보일때나 그러치안호면 양편이 모다싸우기는 실호면서도 자존심에 억매여 서로먼저 끄치기가 어색할때가잇스니 이때를타서 잘라말으고 말리는것이 조습니다 어른들생각대로 무리하게 간섭하면 결과가 조치못할뿐더러 아이들 당자끼리 첫재 무리한간섭에는 반대합니다 그리하야 싸홈은 더욱 커지고 나아가서는 양편어른들까지 내다러서 울타리와 담장밋으로 서로욕들하고 싸우게되는것입니다。



아가씨와왕자별 (上)

金相德

하날우에 별나라에는 왕자별이 잇섯습니다。

이별님은 다른별보다 뛰어엽부게 귀엽게 착하게 생긴별님이엿습니다。

왕자별은 날마다 날마다 저녁때가되면 얼른나와서 반짝반짝비치면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내려다 보는것을 재미로알고 다른별보다 제일먼저비츨 내고잇습니다。

×

이 왕자별님이 뜨는 바로 그미른 시골 어느조고마한 동리이엿는데 그중에는 한 가난한초가집이 잇섯습니다。

이초가집에는 열여섯살먹은 처녀아가씨가 살고잇는데 아가씨는 이세상에 제일어여뿌고 착하게생긴 처녀아가씨엿습니다。

아가씨는 해질때만되면 저녁밥을 얼른해먹고 상을 치우고뒤스겻 동산에 올라가서 하날우에 제일 먼저떠서 반짝반짝하는 왕자별님을 처다보면서 곱고 고흔목소리로 가늘게 가늘게 노래를부르는것이 날마다하는일이엿습니다。

저녁밥만먹으면 의례히 동산에 올라가서 곱게부르는 아가씨의 노래소리는 조용한저녁마을에서 고요한하늘로 처량하게도 울려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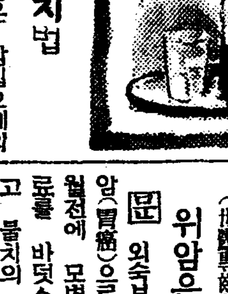
어느틈에 왕자별님도 아래세상에서 어엽븐아가씨가 부르는 그고흔노래에 귀를기우리기 시작하엿습니다。

이럭케하기를 저녁마다 저녁마다 하엿습니다。그리하야 어느틈에 아가씨와 왕자별님은자연히 친해젓습니다。정다운동무가 되여버렷습니다。

아가씨는 서늘하고 조용한저녁때가되여서 어서하늘우에 왕자별이 떠스면하고 기다리게되고 왕자별은 어서오늘도 저녁때가 되여서 얼른 나가서 아가씨에 어여쁜노래소리를 듯엇쓰면하고 기다리게되엿습니다。

이럿케 저녁때가되면 별은 반짝어리고 아가씨는 노래를 부르고 하엿습니다。

혹시날이흐리여 구룸이하늘과땅사이를 가리게되면 왕자별님은 땅을나려다 보지못해서 섭섭해하고 아가씨는 왕자별님을 바라보지못해서 섭섭해하면서 그대로 섭섭히 보내는날도 잇섯습니다。하로 이틀 지내는동안에 처녀아가씨와왕자별님사이는 정이 점점 두터워젓습니다。그래서 긔어코 큰일이 생기고야말엇습니다。



수은독와 치법

問 금번 소생은 삼십오세의 녀자이온대 지금으로부터 수년전 치통으로 약간 고생을하올든바 최근 수개월전부터서는 그통증이 심하야 식음을전폐하다십히중세가심상치안하므로 당지치과의원에서 진찰을바든결과 의사의 말이 수은(水銀)든약을 먹기때문에 은독(銀毒)이낫다하며 그 아픈이가운데서 제일심히아픈이 한개를빼고 한석일간수술을하면 더는 벌지안해도 근치는못한다 하오니 사실수은독을치하는방법이업는지 상세히하교하야주십시요 복망합니다 (全州一讀者)

답 수변전에 어떠하게치통으로고생을하엿든지 잇몸이아프다든가 흑은이가아프다든가 엇지하야 수은독(水銀中毒)이 되엿다는것이 분명치못함으로 자한약은 일러드릴수업습니다 물론수은독으로 잇몸이아픈것도정도에따라서 치료할수잇습니다 (世醫專齒科 金昌濂)

위암은낫지못하나

問 외숙부한분이 계신데 위암(胃癌)으로 고통을바더 이개월전에 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바덧스나 아모 효과가업고 불치의 병이라고하여 퇴원을하라고하기에 지금은 자택에서 한약을쓰고잇습니다 점점병세가 심하여 사경에 이르럿습니다 위암이란병은 낫지못합니까 (市內 三和店員)

답 위암으로 입원치료하야도 효과가 업섯다고요 위암이 확실하면 나흘수 업겟습니다 위암시초에 수술을 하면 나흘수도 잇스나 지금 당신의 외숙부는 낫기 어렵겟습니다 그러므로 병자를 잘위안하여 드리고 통증을업게하고 또는 구토를업게하는 대상적치료만 잘하여드리게 하십시요 (京醫病院長 朴秉來)

이뿌리가아퍼

問 사오변전우연히 이뿌리백힌부분이 밥속자고나든지 알지못하는사이에 조금식 허저서아픈결 느끼게됩니다 그리자면순도못지나서 상처는 점점크게허저드러감니다 그리면 아퍼서이고통을밧게되다가는 조금식나서 며칠지내면 말정하게 나어도불과한달이못되여 또그럿습니다무슨병입가요 (錦山 愛讀者)

답 이뿌리백힌부분이라하엿스니 아마잇몸을말한것이 아닌가하오 당신의말한바에의하면 도모지엇지된것을 알수가업소 좀더상세히적어보내시요 (世醫專齒科 金昌濂)

만성중이염

問 소생은금년십구세 미혼남자인데 오륙년전에성홍렬을알코나서 급성중이염이되여고생하다가종내낫지안코 만성이되여 수개월이나 의사에게 치료를밧고 편도선수술도하얏스나 낫지안습니다 엇지하면낫겟습니까 치료할처방을가라처주십시요(若州生)

답 의사에게직접치료를바려도 낫지안하다하니미안합니다 귀병만전문으로보는의사에게 자세한진찰을바터보십시요 참고될점이 잇슬것갓습니다 (京醫病院長 朴秉來)

때가낀빗소제

경대설합을 열어보십시요 머리비끼는빗에 머리스때가끼여서 빽빽하지 안습니까 이것은 솔질을하야도 잘지지안흐므로 누구나 곤난을 밧는것입니다 만약 빗에 때가 끼엿거던 붕사(硼砂)한숫가락을 따뜻한물에너코 잘개여서 그속에빗을담거두면 감쪽가티 때가빠저버립니다 그런데 물이너무더우면 빗이상하기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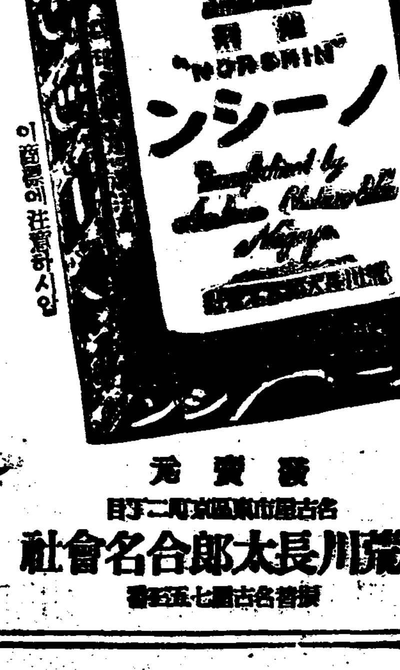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흐릿할때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좃치못할때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을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시드래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賣藥商店에잇습니다
各處漢藥房에도무러보십시오

마리가몹시압흘때……노ー신
골치가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히변두리를압흘때……노ー신

ノーシン
노ー신



이商標에注意하시압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東新町二丁目
荒川長太郞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五五番

金 銀 白 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若草映画劇場
十九日ヨリ五日間 晝夜三回入替無シ
▲オペラは踊る メトロ社 マルクス三兄弟主演
▲青春の溜息 パ社 シルヴィア・シドニイ主演
▲唄の世の中 PCL 主題歌(とんがらがつちや駄目よ)
大人五〇 學生 小人三〇
電本②二五四番

十九日特別大公開
御後援 大阪朝日新聞京城支局
第一回晝之部 十二時三十分
第二回夜之部 七時三十分
第三回 ○時○分
新興キネマ提供 超豪華版
寬壽郞プロ 原作吉川英治 監督 滝澤英輔
オール·トーキー
宮本武藏
嵐寬壽郞主演
杉山溫三九、森静子、毛利峰子、久松美津枝、歌川八重子、荒木忍 助演
嵐德三郞
新興キネマ大泉超豪版大作
原作『チエホフ』
脚色 國廣周殊
監督 村田實
オール·トーキー
櫻の園
霧立のぼる主演
雙見洋、千田是也、南頭章三、東山千惠子、村瀨幸子、浦邊粂子、助演
永樂町 中央館 電③二三番

八月二十日부터三日間大公開
巨彈映畵鑑賞週間
每日三回晝夜公演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夜間八時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프일로 센氏監督
闇の銃聲
메리부라이안孃
볼스 카라 못드氏
梗槪 犯罪人名博士類似한얼굴노부터一枝에納合寫眞을作成한犯人을猛活躍中에서危機에빠저잇는그아들을救하엿다는名篇中에도寶玉篇
松竹浦田特作品(올사운드版)
島津保次郞氏監督
現代劇 果樹園の女
栗島すみ子 大塚君代 山內光氏 共演
世界올림픽뉴ー스
實演多數紹介
鐘路五丁目 第一劇場 電光一一番

銷夏漫筆 農業國의 遺利【十六】

湖岩

朝鮮産物로 國際貿易品이 잇다면 그는 두말할것업시 人蔘이다。

人蔘이 藥草로 中國人에게 販路를 둔것이 唐以來의 일이니 中國人은 이 人蔘을 藥材뿐이아니라 飮料에 使用하야 거의 日常生活의 不可缺할 物件이 되고 말엇다。

鎖國孤立할때 半島와 大陸의 商界가 오죽 이 人蔘의 定期貿易에 依하야 겨우 一縷의 聯絡을 짓게되엇거니와 朝鮮에선 이로써 國庫輸入의 主要한 財源의 하나로 삼앗슴은 예나 이제나 變함이업다。

그러나 人蔘國으로 世界에 聲名을 博得한 朝鮮이 어찌하야 茶에 對해서는 生産조차 하지못햇는가。

三國史記에는 新羅興德王三年에 使臣大廉이 唐에서 茶種을 어더다가 智異山에 심것드니 그後 갓구는者가 업스므로 그것이 알수업게 되엿다고하엿다。

朝鮮은 甘泉이 흔할뿐더러 食後에 飯湯을 마시는 民俗이 잇기때문에 茶의 普及에는 적지안흔 障碍가 되엿슬는지 모른다。다만 上流貴人사이에 飮茶의 風이 잇서서 각금 中國으로부터 茗品을 購入하기도 하엿스며 特히 中國손님이올 때는 茶로써 款待하엿스니 이는 徐兢의 高麗圖經에 分明히 적혀잇다。

高麗때는 貴族들이 飮茶를 자못愛好하야 一種茶道가 된것이 잇섯던듯 하다。同書의 茶組에 갈우되

「邇來頗喜飮茶。益治茶具。金花烏盞。翡色小甌。銀爐湯鼎。皆竊效中國制度。」

이것이 흥은 그當時에 茶道가잇섯다는 一證이 아닌가。만일 그러라면 幽寂한趣味를 띄인茶道가 天下逸品인 高麗磁器와 어울리어 얼마나 高麗貴人의 生活을 高雅優美케 하엿겟는가。

이러케 茶를愛好하는 高麗人이 왜茶의栽培를 等閑視하엿는가。三南의暖地와 濟州의風土는茶의栽培에 適宜하거늘웨 그것을 만히栽培하야 國際貿易品을 맨들지 못햇는가。이것이 一大疑問이다。

茶外에 또桑이 잇지안흔가。桑도만히 栽培하야 養蠶을 獎勵하고生絲로써 國際貿易品을 삼앗슬진대 그利益이 幾千人蔘에 比할바 아니다。

이미알고 實行하든 宇內先進國의 蠶業은 아득한 옛적부터 이朝鮮人이 一步를나겨 生絲를國外에까지 輸出시키지 못하고 말앗다。

世界的으로 이름노픈 茶、生絲의 二大輸出國사이에 끼여잇는半島가 茶、生絲와는 아주因緣을 斷絶하게된은 이얼마나 矛盾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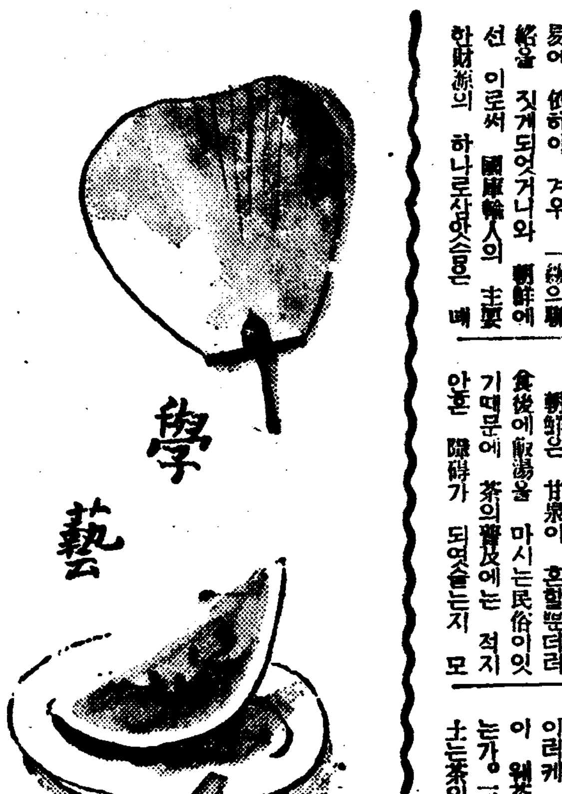
「五畝之宅、樹之以桑」이란 孟子의 말도 古賢의 名訓을 引用할것도업시 桑業獎勵이 一種敎育의新目은 누구나 다 짐작하는바다。儒敎國朝鮮이 王道政治의 第一步인 産業을 無視한곳에 朝鮮의弱點이잇다。

中國政治家 李鴻章이 朝鮮人蔘과 茶의 栽培를 보고 茶와桑의栽培를 勸告한것이 잇다고 敎育의 新은 먼저 茶와 桑의栽培를 獎勵하는데 잇다고 하엿다 그는 다시 蠶民에게勸하야 人蔘을 만들 기를 朝鮮에서 外人에게 各蠶民이 各히 각구지 안는가 蠶民의 蠶業이 勤하되 만히각구면 國家의 利益이 增大해진다고햇다。蠶民의 이러한 朝鮮에는 李鴻章도 웃고 말앗다한다。

人蔘과아울러 茶와 桑業은 農業國半島에 잇서서 最大한 利益이건만 이를 利用하지못하고 말앗슴이 우리先民이엇다。過去의 海山의 遺利는 말할것도 업거니와 이茶桑가튼 遺利라도 無視해서는 아니되겟다。

文化民族치고서 朝鮮人처럼 生活에 疎漏한이는 드물것이다。大地上에 길리學究的에는 무엇보담도 經濟能力이 잇서야 하겟다。

學藝



現代詩의 生理와 性格

◇長篇詩『氣象圖』에 對한 小考察◇

③ 崔載瑞

感覺과 知性

詩는 因襲에 對한 永遠한 反逆이다。詩는 새로운 人生觀이나 새로운 哲學을 가지지 안허도 조타 그러나 다만 새로운 感覺만은 가저야될것이다。普通市民과 달른 눈으로써 물건을보고 그본바를 正確하게 表現하는것이 詩人에게 맛겨진 職이기때문이다。萬一 詩人은 드디여 이 社會에 存在할 理由도 發見치못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決코 허수한일이아니다。우리가 한번 精神發展의 過程을 삶혀본다면 이새로운 感覺이라는것이 얼마나 困難하고。또 重大한가를 알수잇슬것이다。歷史에 重大한 轉換點을 맨드러낸것은 말할것도업시 政治的 革命이엿다。그러나 그前에 思想的 革命이 업섯다면 政治的 革命은 到來치안햇슬것이다。그러면 思想的 革命은 理論鬪爭으로서만 確立되는냐하면 決코 그러치안타。이러케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아즉까지 犯하야온 커다란 過失이다。思想的 革命의 出發點은 決코 理論이 아니라 感覺이다。封建社會制度의 因襲에 빠져서 그런 方式으로밖게는 생각할줄을 모르는 中世紀人이 엇지하야 封建文明을 깨트리고 近代人이 되엿든가? 中世紀人에 對하야 封建制度의 價値는 絶對的이여서 批評의 對象이 아니라 批評의 尺度이고 또 批評의 材料가 아니라 그 思維의 모든 것이엿슬것이다。그들은 封建制度를 中心삼아 생각하고 行動하얏슬것이다。

郊外의 午後

實로 그들은 그들自身의 感覺으로 그것을 反逆하야 그들自身을 스스로 뒤집어 노핫든가。그것은 페트라-크와가튼 詩人의 感覺的 反逆에 始作되엿다。페트라-크도 처음부터 近代文明의 所持者는아니엿다。다만 그들自身의 生活과 思想에 感覺가잇고 新 感覺이잇슴을 느끼섯다。그러고 새 感覺을 所有한 詩人이엿다。

하얏섯다。여것이그의 時에 새로운 感覺으로서 나타낫다。思想의 誕生은 必然히 感覺的인 問題이다。感覺이 움직이는 바를 表現하는 다만 指示할뿐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感覺이라는 것이 그러케 쉬울리가 아니다。그것이 무엇보다도 獨特한 天賞을 要하기때문이다。뿐만아니라 因襲에 反逆한다는 勇氣도 必要하다。여기서 우리는 詩人의 이詩人의 感覺이 果然 우리에게 무엇을暗示하는지는 이제 速斷키어려우나 우선 詩集 첫페지를 들치

비늘

도친 海峽은 배암의잔등 처럼 살아낫고 아롱진 아라비아의 衣裳을 둘른 山脈들 바람은 바다人가에사라센의 비단 旗폭처럼 미끄러웁고 라는 一節을 읽을때 우리는 시 시한 日常生活의 世界를떠나 何如튼 未知의 世界로 드러가는듯한 新鮮한 印象을 맛는다

大體로 이詩는 半에 잇서서 諷刺的이 고 後半에 잇서서 感覺的이다。우리는 上海萬國公園에서 잡은 룸펜

夏期學生通信

江華紀行 (一)

法專 李哲

할것이다。그리하여 그들은 아무 欲望도 同情도 업이 默默한 諦觀 아래 부듸치고 흘러가고 이러동안에 宇宙의 歷史는 進行한다。코리당자근한 모래사장에 참새이는 물결 보다 얼마나 서원하고 사내다운 態度라 할까。

四時半 月串에서 배를 내렷다。여긔서約十里 江華邑內로 돌어섯다。

나는于先 途中의 섭갓지아니한 田園風景에 놀랏다。논이이러케 만흠을은 생각지못하얏슴으로이다。싱싱한 舍이 곽곽 山野에 들어찻슴에도 놀래지아니 할수업섯다。

邑內到着後 即時 高麗山 白蓮寺로 向하야 同寺에서 하로밤을 쉬엿다。

二十四日

高麗山의 아츰은 꿈나라와 가 티다。

어제밤부터 내려퍼붓든 비가 아츰이되여서야 겨우 긔세가 죽엇스나 아즉도 실가튼가랑비는 우리의 압길을 어둡게 하고잇다。高麗山엔 연못이 다섯개잇서서 (一井在山頂、餘四井은各各 東西南北)으로 그녯날 어느때 各各 다른 빗갈가른 蓮花이피 엿다한다。거긔緣由해서 白蓮、靑蓮、赤蓮、(漬石)—— 所在不詳)의 네절을 세웟다한다。

四五日前 祈雨祭를 지냇다고 山頂우를여며 祭祀지냇자리가남 어잇섯다。

高麗山은 江華의 鎭山이요 風水上으로도 所傳이만타。 海를에여싼 灰色의 뼈일이엇 다。

이러한由來잇는 우물이다。또 白蓮寺의 증은 이러케말해주엇 서。

새한마리 나르지아니하는 高麗山山頂에는 우물이잇섯다。

高麗山五井⋯一井在山頂、全四 井稍低、相傳泉有蓮花、飮元多膏 力、華人見而猜之、以鐵釘壓勝、 故濶泉澗而士林不出云(江華府志 에서)

漢詩募集

題⋯蓮

押⋯心

限八月二十五日

(薄謝進呈)

一節은 文明의發達이 支那大陸을 振動하야 都會를粉飾하는 市民들의 燦爛光景이다 비거리의 골작에 몰켜드는 은데가리의 下水道、먹처럼 우적이는 가-느다란 팔들。 救濟미신에 傳染을 보찬는지 치이몰가、호들리우는 억개의 물결。

의골목가운데서 金氏一流의 新鮮하고 適切한 感覺의 要素에 주 립을 잴수잇다。

찌는귀녕 별도업는 「바지부」에서는 꿈들이 바람에 흩들려 소스라처 깨엇습니다。

「하이칼라한 『페-브스테의 희꿈」 늙지한 「카사라드」의꿈 「센드위치」의꿈 비진한 강남곡 (傍點은 筆者의것)

이 얼마나適切하고 또新鮮하 냐? 나는여기서 마치 濟風가 치 덥고도 날카로운 感覺性을 相對한다。

이詩人의 感覺은 다만 스마 -트할뿐만은아니다。또한銳利한 칼날가티 表皮를 뚤코 우리의骨髓 로달려드는 切實性이잇다。다음

孫、南兩君優勝詞

海嶽 林尙鎬

[illegible]

漢詩

『薔薇』二擲香

桐岡 李遷

佳作之四之八

咸州郡朱地面新豐里 金應杓

薔薇一架滿園香

蜂翅紛紛蝶舞狂

綠刺翠枝斜午影

黃鬚紅朶泛朝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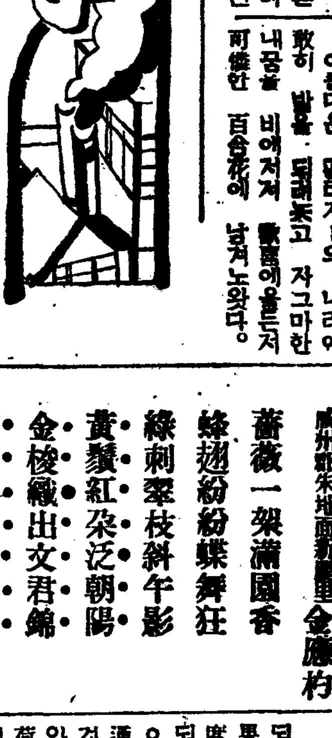
金梭織出文君錦

玉手裁成漢女粧

燕燕如花花燕燕

依然今古共流芳

科學의「?」



無電의 異變인『데린자-』現象 (五)

東京 金一鎭

지금 問題의 無電障害時 이新星노파진다는것이다。이것은「이온化層」이 如何히 變化하는냐 大端히 注目할現象으로 이것이 하야 第一重要한 問題이니 이太陽으로부터의 粒子의 作用을 에 對하야는 아직充分한 觀測이업다。다만 데린자-博士의 報告에依하면 昨年十月에는 無電障害가 나타난 二十四日前後에 約二百五十粁에 存在하든『F2層』이 二十四日에는 四百六十粁 原來 이러한 高空에는 大氣의密度는 非常히 低下되어잇슴으로 確實한 事實이며 密度가 非常히 적으면 普通紫外線을 照射하야도『이온化』의 量은 僅少하야 [illegible]

漸次溫度가 上昇하는듯하다。隕石飛跡의 硏究로서는 六十粁로 上空에서는 約三十度의 溫度라는 結果를 어든學者가엇다。數百粁上空에서는 春夏秋冬의 差別이업시 더울적에는 千二百度라는 엄청난 溫度에 達하리라 推測된다 그러나 夏期에는 光線의 照射가 세임으로『이온』化層이 增加되리라生覺되나 實際로는 이와反對로 顯著히 減少 되나 이事實은 溫度가노픈 結果 大氣가 非常히 膨脹되여密度와가리 이온의 濃度도 減少되는 때문이라 解釋되다。그럼으로 이以上의 高層에서는 普通이온의 濃度도 더욱 적어질것이다。그러나 以上에 述한바와가리 太陽으로부터 高速度의 荷電粒子가 盛히 飛來하면 이에因하야 一層以上곳에서도 이온化가 激烈히 일어나 이온化層을 形成하야 下層으로부터突破하여온 粒子로터보리 이온의 中和가일어나 그結果『F』層에 顯著히 딱적는것이아닌가推測된 다。

그러나 이에對하야는 더充分한 觀測과 硏究가 必要함은勿論이어니와 現狀으로는 確實한 것은 말할수업다。

『現象의 週期의問題』

『데린자-博士』의 指摘한 無電障害에 關하야 더욱 興味를끄는것은 이것이 五十四日이란週期를 가지고잇는것이니 米國에서 再昨年의 記錄을 調査하여본 結果二十七日 即 太陽自轉週期와 一致한것과갓다는 報告도잇스나 確實치못하며 日本內地에서는 本年二月八日 四月二日 五月二十七日及 二十八日에 觀測되엿다傳하며 이期限中 四月二十九日及三十日에도 障害가 잇섯다하며 이것은 四月二日과 五月三日의 中間에 該當한다。또三月十日 四月九日 五月十五 日에도 觀測되엿다는 報告도잇 스니 四月九日은 英國「그리닛치 天文臺」에서 觀測한 二月十四日 로부터 計算하야 五十四日에 該 當하며、三月十日은 大體로 이 中間의 日字이다。

新刊紹介

▲朝鮮文學 第二十八號 發行所京城府堅志町八〇 定價十五錢

▲婦人公論 八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二丁目一〇 四海公論社 振替京城九八六〇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幼年畵報 八月號 發行所 平壤府西城里一〇〈ニノ四九 一千友學社 振替京城一九七〇番 定價十五錢

▲朝鮮興信 第七十六號(月刊)

▲發行所 京城府[illegible]町二丁目一〇 朝鮮興信所 定價二年六圓

▲朝鮮情報 第二號(月二回發行)所 京城府光熙町二丁目三二二 朝鮮情報社 定價一個月五十錢

▲更生 八月號 發行所 本赤十字社 更生支部 神崎町 所內 更生社 振替大阪七七五三二番 定價十五錢

▲ローマ字 臨時增刊號 臨時ローマ字興宣會の會報 發行所東京市麴町區丸ノ內三丁目二 番國際協會事務所內 ローマ字ひろめ會 定價四十錢

金剛山雜草

探勝「노-트」에서

② 李甲燮

표문!

이아츰이 웨이다지도 明朗하 라까 一年치고도 보기드무다는 이맑은아츰、나는우串계이나 갈 것처럼 輕快하게 밀진보다 그리 고

短杖을집고 나섯습니다 이 만하면 오늘저녁에는 松都에서 無 事히 묵고잇는山全景도 一覽히 호 렷어서 山으로 바다로 行樂을 始作하고잇습니다

우리部隊도 行樂입니다 先頭에 는 이번旅行의 好伴侶요親友인

君이 隊長으로 나섯습니다 나 는 조심조심 그를 따라갑니다

×

楡岾고개에서 한숨쉬고 神溪寺 압페 다다랏습니다 저彩雲峰엔 구름이 거치고 瀑布만 말업시 떠러지고잇습니다

다시 山모퉁이를 돌아 숲속 으로 나무스그늘을 밟으면서지 내갑니다 나무들은 이때가 제 철이라고 물일듯이 잘아고잇습 니다 兄!시내스가에 나왓습니 다 물소리도

요란합니다 이사이로는 물소리의사 이도 間間이매 암의소리조차 흘너옵니다그려나 는 저有岩怪石의 山봉오리를우 둑허니 바라봄니다 우리는 시 내물을 발로쪽에두고 또 숲을 새로 지나갑니다 兄!저기 구 슬멍석이 흘너옵니다 아니흰連 珠암석이 쓸너내려옵니다 여기가 連珠潭이라고 물이워진것을보면 녯날그길손이 지날때에도 으음 아마와가티 連珠가흘넛슬게지오 우리는 이連珠岩우에 나란이 안저서 맑어서 손과손에 흰구슬 을담어봄니다 맑은물입니다 아 니맑다고만하면 그것은 概念의 奴隷입니다 맑은것보다 더맑고 히것보다 더흽니다

이름에、이玉水에 내몸을 한 번

담거 보앗스면 얼마나 조 호켓가마는 나는嚴肅 의惑情가 무섭습니다 우리는도 가야합니다

兄! P君이 갑작이 「여보 저 臉을 보오」하고 恨嘆스러히 나

에 「京城府某子某某某」아주名 手로다가 이러케 새여노앗습니 다 族譜로 볼의文呈 이백성들 이 金剛의自然을 또 그것으로 破壞햇습니다그려 그러나 兄! 다행히 우리世代의 우리가 알 만한사람의 일홈은 하나도 發 見되지아니합니다

兄! 神溪寺아페서부터 좀아 지기始作한 이 幽峽이 인제는 山과山사이로 겨우 한줄기의溪 流를 흘너내려보낼뿐、우리는발 미테 玉流、머리우에 高嶽을 이 고 山비탈을 옮나갑니다 인제 차차 서늘하운 긔운이돌고 땀 도 것처집니다

精神도 爽快해집니다 여 기서부터가 아마 修 道僧의 말하는바 俗仙의 境界인 가봅니다

표兄! 飛鳳瀑이 떠러집니다 저하늘가운부터 이玉流洞鉢淵속 에 사정업시 떠러집니다 나는

쇠출에 기대여 저瀑布와 이鉢 淵을올어러보고 구버보고합니다

표兄!

나는 인제 九龍瀑아페 옷깃 을여이고 단정히섯습니다 三面 石壁의 이그윽한山谷에 저瀑布가 勇敢하게도 아주 죽어버릴作定 으로 광광떠러지고잇습니다

兄! 행여 이瀑布의 노피가 얼마냐는지 九龍淵의기피가 몟 尺이나되느냐고는 뭇지말아주십 시오 나는 다만 水煙속에서서 壯嚴한 저瀑布를 바라보면 그 만입니다 나는

精神을 가다듬어 깨틀려할것가튼 宇宙를 저瀑聲 과 마주섯습니다

兄! 삽시에 周圍는 쭈어시 고요하야졋습니다 瀑聲도 업서 졋습니다 同行도 이저버렷습니 다 다만 저飛瀑과 나、그리고 水煙에싸운 나의머리우로 가고 오는 저조각구름이 나에게 至 想을 실어오고 실어가고할뿐입

니다 나는 水煙의 가는다란물 방울에 나를 아주이저버리고말 앗습니다 내몸은 아주 水蒸氣 로 化하고말엇습니다 나와마주선 저瀑流도 일측은 한방울의 水 蒸氣엿습니다 한방울의 水蒸氣 가 宇宙를 돌고도는 사이에엇 저다가 金剛山꼭대기에서 떠 러지고 말엇습니다 나무니페맷 그러지고 바우에 코방울 찟는 동안 실오리처럼 모으고 모아 서 지금바루 내아페서 저巨軀 가『페니스』의주엄을 죽어버리 는것입니다

다시 瀑聲은 들려옵니다

표兄! 自然은 큽니다 嚴肅합 니다 宇宙는 整然합니다 人間 은 至極히적은것입니다『人間은 宇宙에 比하면 虛無다』는파스 칼『의말이 갑작이 記憶에떠올읍 니다

獨立作家俱樂部 第二回總會記 (三)

在東京 金龍濟 寄

總會는 正午를지나서 幹事 江口渙氏의 司會辭로서 開始 되엿다。처음에 只今까지의幹 事五人(江口渙、靑田孝吉、林房 雄、平林다이子、松田解子)이 辭表提出。一同은反對留任을勸 告。幹事不聽。前田廣一郞氏가 辭任의理由를 個人個人釋明하 라고 抗議的質問을發하얏다。 各幹事의答辯이잇슨後에 幹事問 題는 議事後로保留하고 總會 의本論에들어가라는 緊急提案

에依하얏다。

第一幹事의辭任問題가 일어 난것은 어되잇든가를생각하야 보매 只今까지의 無爲安閑的狀 態와 그의責任을幾械的으로서 幹 事에게만轉嫁하얏슴으로서 幹 事들도 感情的으로되엿든것과 그의部署에 愛着을가저못하엿든 때문이다

이여서 總會의議事에들어가 지前에 個人의自己紹介를兼한 感想談을하게되엿다

作家俱樂部의 性質과目的은무 엇이냐?이第一步의 問題를再 檢討하게되엿다。그러나 特別 한새로운規定이·發表된것도아 니고다만 從來의事項이 明白 하主張된것뿐이다。

日 獨立作家俱樂部는 何等의 政治的 色彩도업는 文學的社 會團體이다。다만프로레타리아 作家를中心한 進步的文學者들 親睦機關이다。는結果에定論되 엿다。

다음에는 組織上의問題——進 步的作家를加入식힘에對한可否 의意見이다。現在의成員은 八 割以上舊作家同盟系의 作家들 이다。現狀보다도 組織을强大 케하야서 活動을强化하지안호 면안된다。그럼으로 지금가튼 때에는 무엇보담도 文化上統一 的親睦이必要함으로 自由主義 的進步作家도 만히될수잇는데 까지 包含하자 門戶를開放하자 는多數論과 少數의프로作家만 의」組織을主張으로서分立하야 마침내 決議는多數에歸하엿다

讀者社交室

▲本人이 文藝雜誌와 趣味雜誌를 發刊하랴하오니 出版業에뜻 이게신분은 左記住所로차저주시 든지 地方게시는이는 書信으로 이야기해주시면 感謝하겟슴니다 그리고 漢文 던센스 小說 詩 童謠 民謠(原民謠)古謠 評論等 等玉稿를募集하오니 뜻이게신분 은 佳作을던저주소서 京城積善

▲讀者諸氏여? 左記冊을 가 저신분에게 高價로 사겟습니다 書名 實地工作術 著者 池田辰 衛 發行所 信友堂書店

이러한冊을가지신분은 速히左記 住所로通知하야주시요 或은社交 室로?

市內梨泰院町四二九番地 閔鐘男

▲左記書籍을 廉價로讓渡하실 분은左記住所로 價格을通知하야 주시요

李光洙著 端宗哀史 李光洙著 麻衣太子 李光洙著 李舜臣 李光洙著 乙亥名詩選集 詩苑社永郞詩集 慶北聞慶郡聞慶面下里 錢谷部

▲讀者여러분中 關節炎가튼經 驗잇는이에게 事情드립니다 十 九歲의少年인데、네군데를手術하 고只今은 完全히나엇는데 오른 편다리가、절버지고처들수업시 빽 빽해젓습니다 以後에라도步行하 게될수잇는지 療法과體驗談을左 記로直接通知해주십시오 黃海道長連邑東部里校洞園 崔五才

▲慶南讀者諸氏의게本社交室을 通하야웃고저합니다 弟는齊校三 種訓導를希望하고 左記書籍을求 하오니 讀者諸氏께서 或讓渡하 실분이잇스면 左記住所로 通知 하여주시압소서 發行所를알여주 서도感謝하겟나이다 普校三種訓導試驗道指定參考書 釜山府草場町養成學院 慾求生

▲讀者諸賢에게 뭇노니 信川 九月山에서 做工하던 淸庵이라 고稱하는 柳承武兄이 這間京城 으로가잇다더니 아직도漢陽에서 든든한몸으로잇는지 消息이듣구 시퍼요 住所를아시는分은 手苦 스럽지만 下敎를企望이야요 黃海道新川 全德

▲京城讀者諸氏여 崔相浩 本人本籍는同東이옵시다 姓名은 李弘秀지요 上京한지一個月半이나되 닷지요 上京할때에아무도몰 엿지요 工夫할양으로 갓다는데消 息이업사오니 右人住所를아시는 분은社交室이던지 直接通知하시 면 感謝하겟습니다 姊兄이여이글 을보시거든速速편지하시심을바람 陝川邑八四二 張生

▲明治四十五年陰二月初六日酉 時에 出生하온바 陽曆으로 何 月何日何曜日이며 月建日辰天干 을 仔細히調査하야 本欄에明確 히下敎하야주시오면 그感謝하옴 을 마지안켓슴니다 慶北靑松郡眞寶面廣德洞 孫永穆

▲社交室여러兄께仰告함 井上 英語講義錄一學期分을 廉價로讓 渡하겟사오니 有意하신분은 左 記住所로 直接問議하시옵 그리 고 讓受하는분께中學講座一學年 分(定價三圓)을 無料提供하겟슴 니다 平南平元線舍人場驛前 羅飛鳥

▲讀者社交室을通하여 左記書 籍을求하오니 或讀者諸賢가운데 讓渡하실분은안게십니까? 有意 하신분은 實渡價格을明記하여直 接左記住所로 通知하여주시오면 大端感謝하겟나이다 越智眞逸著 最新生理學(增訂第七版)(原價 十四圓)

京城阿峴町五十番地十三號 魯春成

新流行のおしろい美粧料

ブルース

(ホルモン含有)

부 루 스

어여뿌게되는다섯가지理由!

●絶對로白粉下가 所用이업슴. 수분의一로 化粧拭

●使用量은 在來의 固煉白粉의 1/3로 充分

●化粧이 밀리지 안어 衣服을 더럽히지 안음

●高級치다님에 整肌효果로 쑬쑴

●淡淡은마음대로、化粧水로 물고 白粉으로도 大端한重寶입니다

白色、日本髮인분

肌色、一般婦人인분

黃色、洋裝洋髮인분

各色一個 1.00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二 デイユーカーパンニー 振替大阪四八三二五番

連載野談 (九七)

布衾記

申鼎言 作 · 金熊超 畫

신의잇는편에 (十五)

백운국선의 용맹은 용궁의며도 입을수업는 큰 용맹인것을 알게되고 그 두눈은 재상과 제후소저는 마치 일월의 광명이 엇저지듯 앗겨이 칼칼하야 것이다.

그래서 백운국선은 자긔의협한 선제를 오런히 그 운수에 행기고 모든것을 모두 이재하리기로 작정하얏다.

그러나 과연 잇지못할것은 제후소저이엿다.

「내가 천지만물을 영영 보지못하기전에 제후소저의 그아름다운 자태나 한번 더보앗스면 내 두눈이 어둡기커녕 아주 썩어도 원한될이 업스련만은 그 기픈 규중에 잠긴몸을 내어이 볼수잇스리。원통하일, 원통하일」

하며 백운국선은 제후소저를 한번 만나기를 원하얏다.

그러나 제후소저의부친은 백운국선의 용맹이 어찌할수업음을 짐작하고 속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가지고 그동정을 살피는 중이라 제후소저를 백운국선에게보내기를 피하얏다.

더저 백운국선의 용맹이라는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그 새ㅅ별과가튼 두눈에 삼이서며 두 눈알이 점점 썩어들어 가는것이엿다.

그래서 명의라는 명의는 모두 청하야 가진약을 다 써보앗고 명산대천이라 일컷는 명승지는 모두 차저가서 산천긔도를 정성것 올렷다.

그러나 백운국선은 그약덕도 입지못하고 긔도덕도 입지못하야 필경은 두눈이멀어 일월과 만물을 보지못하는 장님이되엿다.

백운국선이 장님이되엿다는소문이 하펄업시 퍼지게되매 그소식을 듯는 사람은 누구를물론하고

「앗갑다。앗까워!」 그 선풍도골이 속절업시 병신이 되단말가。앗갑다。앗까워! 그귀선의 옥도 버렴만한 선과한 골골도 속절업시 그 두눈과가리 섹고 만단말가。그 불행은 백운국선의 일신에만큰 불행이 아니오 우리 신라에 큰 불행」

하며 기리 탄식하는 사람도만코 슬히 우는 사람도 만하얏다.

그러나 백운국선을 작고뜰든 버들아기, 꼿아기, 비단아기, 글아기를 비롯하야 여러 녀자들은 스스로 입을 빼죽꺼리며

「잘되엿군。잘되엇서! 잘난척도 너머하고 비싸기도 너머하며 사람의 간장도 너머녹이드니 잘되엿군。잘되엿서! 남에게 못할일을 식히면 그런 벌악이 내리는것이지 제후소저를 위하야 정렬부인노릇을 하드니 잘되엿군。잘되엿서。그 제후소저가 장차 누구의 품에 들어가겟기에。아예 남에게 원한은 끼칠것이 아니야。」

하며 백운국선이 장님이 된것을 오히려 상쾌하게 말하거를 거듭하엿다。

그 녀자들이 백운국선의 큰 불행을 도리혀 다행으로 녁이는것은 무슨 원수가되며 그런것이 아니오 오직 백운국선의 사랑을 밧지못한 원한에서나오는 독한 말이엿다.

그리고 제후소저는 밤낫이다른곳으로 시집을 갈것까지 생각하얏다.

이때 제후소저는 백운국선이 장님이 된것을 웅당 예…할것이어늘 아무런 불행은 긔색이 보이지 아니하고 태연하얏다。

그래서 제후소저의 긔색을살피는 여러 사람들은 서로 모아 안는대로

「그것봐요。제후소저는 벌서딴곳으로 시집갈 생각을하는것이 뻔하지 무어요。때타구나 그러갈의 마음은 벌서 딴생각을하지가 오랜가봅니다 볼상하지 휼상해。백성될 백운국선만 휼상해。」

제후소저가 벌서 백운국선을 이저버리엿다 하며 다음으로는 백운국선을다시금휼상히 생각하기를 마지아니하얏다.

이때 제후소저는 여러사람이 아무리 백운국선을 휼상하다는 말로써 직거려지라도 들은체할뿐이오 아무대꾸를 아니함으로

「에이, 제후소저는 렬녀나 정절녀 기집아이!」

하며 제후소저를 비방하는사람도 적지아니하얏다.

☆曆☆

八月廿三日 (日)

陰丙申七月大 (初七日)

丁丑·水·房·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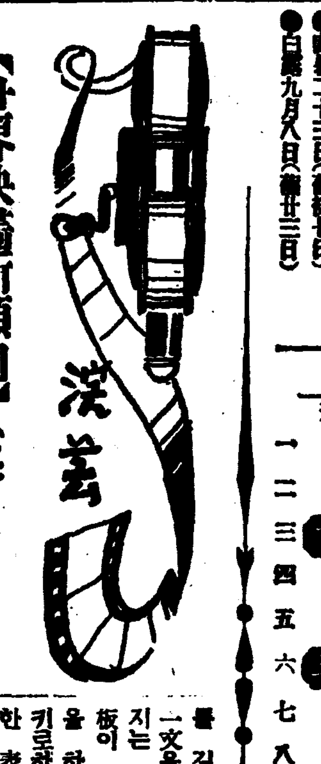
●祭祀修造上樑巳時納財安葬에宜함

●陽曆二十二日(陰初七日)

●白露九月八日(陰廿三日)

【世界映畫新傾向】(三) 토ー키ー와 映畫劇作法 ③

林 蔚 川



아메리카의 映畫作法은 아메리카의高度의資本은 映畫의機械的表現力을또한最高度로노피고 잇다 그러므로 그表現形式의高度의映畫的優秀性을獲得하고잇슴에도不拘하고 濃精的스토ー리와 空虛 그것의 로맨티시즘的인메로드라마가盛하製造되는것은 한입으로 斷해말하자면 非現實的인映畫가되고만다。要는 最近、映畫가 文學과演劇的인 짜루에接近되고 잇는것으로말하면 토ー키ー가토ー키ー獨自의 純粹性을表明하면서겸어나갈수가업는 社會的條件에理由를求할수가잇다。

루네·클레ー르이映畫作者로서 越等한理由를들자면 그가 映畫劇作法을探求하는 監督이기때문이다 클레ー르의作品은 何等文學이라든지 演劇과가튼 짜루에서버서난 토ー키ー純粹性을主흘로한 形式을갓겟다는 要求를 가지고잇다。

爲先 액숀을 否定하는것을逆說的인方法으로서 使用되는때도 그는拒否하지안는다。所謂映畫의 文章法이 가장鮮明한 잉크로그려진作品을 要求하고잇다。卑俗한娛樂物로서의 映畫의 位置를 데모크라틱한것으로 理解하는일을 正當視하는것은 正當한일이라고 아니할수업다。

그럼으로 우에서잠간 指摘한 다른藝術의 짜루에 接觸하는데서模倣하려고하는 所謂그것의一端으로서인 文藝映畫는것을流行'이란 文字로서 處分바들수도잇기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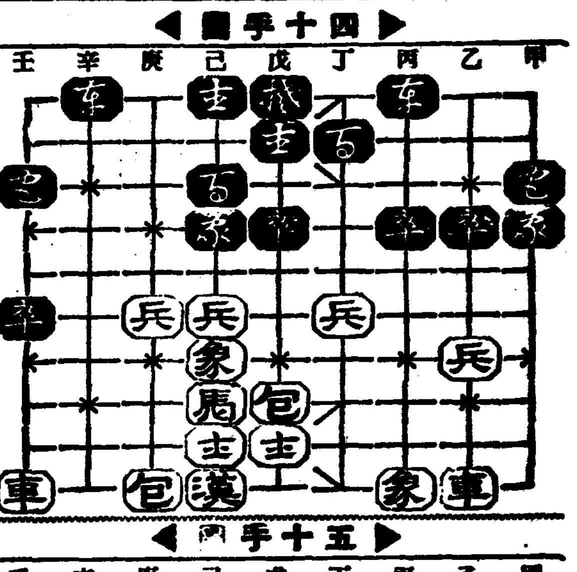
모든藝術이 조호意味에잇서서 交流하는것은 再言할바도 아니지만·토ー키ー가 文學과 接近하는것으로 映畫表現上에 利를 볼수잇겟느냐는 功利主義는 除外하고도 不純한交錯에 끄치고 마는것은 多數의 文藝映畫라는 作品이 말하고잇다。이 問題를 집게 解釋하기에는 事情이 一文을 草하게되겟기로 略하하지는 아켓스나 文藝映畫라는滑板이 興行的으로 多大한 成功을 하던지 못하든지는 못하안키로하고 토ー키ー의 오리지널한 表現方法에 適期以上의 카프를 품고잇는것만은 指摘하여둔다。文學의힘을 映畫가빌다는 卑俗한見解에依할것가트면文學的思考라든지 文學에依한 槪念을 映畫的으로 飜譯시겨서應用하는것이라고한다。이것은 都大體常識以下의것이니까 論外로친다고하드라도 文藝映畫에對한 달콤한 魅惑은 그런卑俗性에多分이잇는것을 우리는 알고잇다

씨나리오·라이터가 現實生活을 觀察하고거기서獲得하는것이 自然主義的制約과 다루지아니하면 아니된다。또는 室內의 드라마의描寫를 目的에 담어서는 意味를 自殺케하는것이나갓다。要는 토ー키ー의 獨自의 形式을 밝고 엇고하는方法은 正當한映畫劇作法을 엇는데잇다고본다。러시아映畫가 것는길과 루네·클렐등이意圖하고 行動하는가운데서그것을 認定할수가잇다。(映畫劇作法에 關한具體的理論은 他日이것의續稿로서쓰기로하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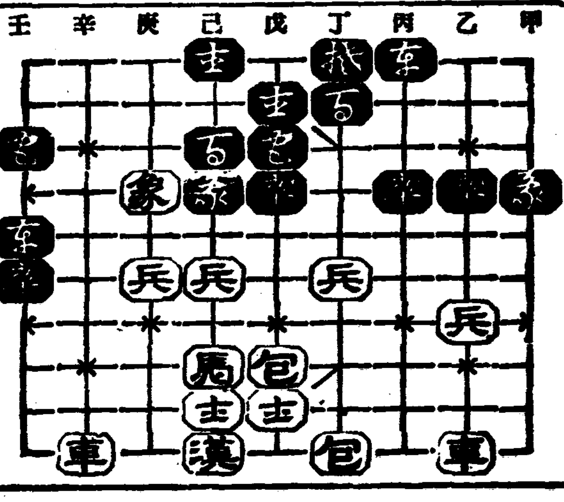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五)

漢 李在鳳 · 楚 朴泰翰

◀四十手圖▶



◀五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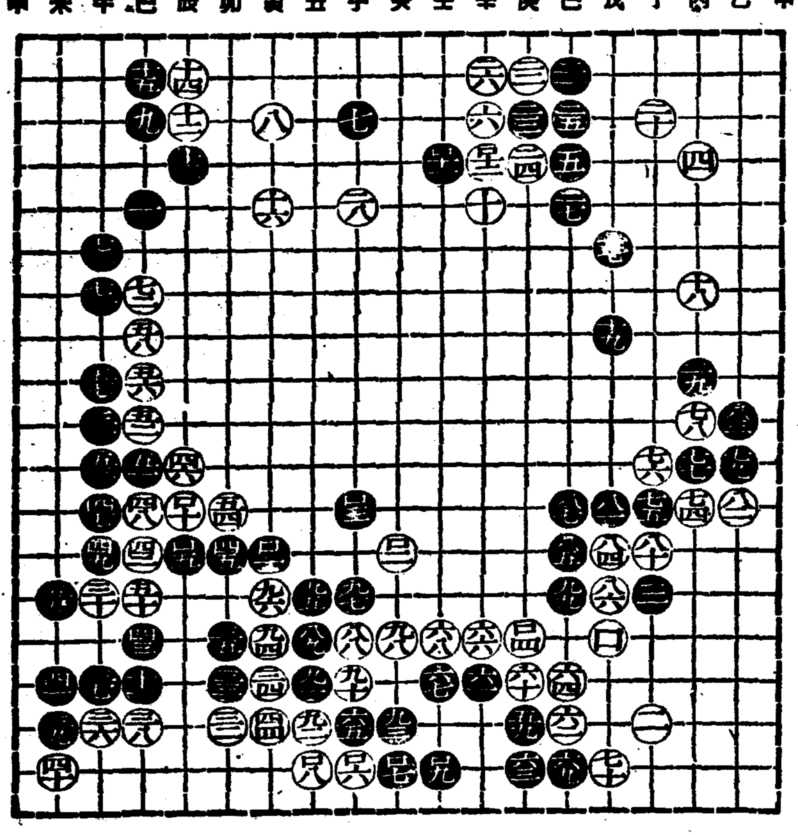


己八一壬七 辛八一辛五 丙七一戊五 甲三一庚二 [illegible]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7=

白 裵樞文 · 黑先 丁奎春

●九七 子의十四
○九八 癸의十五
●九九 己의十四
○一〇〇 戊의十五
●一〇一 寅의十三
○一〇二 癸의十三
●一〇三 子의十二
○一〇四 庚의十五
●一〇五 辰의十三
○一〇六 癸의十八
●一〇七 子의十八
○一〇八 丑의十八
●一〇九 壬의十八
○一一〇 辰의十二
●一一一 壬의四
○一一二 辛의四



▲對局者談 白이 子의十八로 先手를 取한것은 [illegible] 中央勢力確保 [illegible]

라디오

二十二日 (土曜)

◇午後時三〇分 童謠 白陽會
◇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週間時事 朝鮮中央日報 李相燕
◇同八時 講演『朝鮮의特産物巡禮』(四) 總督府商工課 鄭在任
◇同八時三十分 流行歌 一、바다의젊은이 二、꿈에도故鄕생각 三、흘너간녀름 四、봄은흘는다 五、旅路人生 六、바다의캐라반 伴奏 DK管絃樂 尹鍵榮
◇同八時五五分 노들江邊外 一、노들江邊 二、도라지打令 三、밀양아리랑 四、청춘가 五、방아타령 六、노래가락 短簫 崔壽成 細笛 高載德 玄山玉
◇同九時二〇分 라디오·드라마 "돈" 一場

—配役—
喜劇作價……朴魯多
眼役……張南縣
惡役……朱象玉
老役……徐南水
女主人公……張河淑
少女役……白英喜
老婆役……金少蘭
行人……李云永
演出 朴魯鳴 效果 李明石

第一放送
◇午後六時(名)「夏休王子湘」
◇同六時二〇分(東)아이의新聞
◇同六時二五分(高) 趣味講座
◇同六時五五分(東)
커ー렌트토픽스
◇同七時三〇分(大) 納涼이야기
◇同八時一〇分(東) 歌謠曲
◇同八時二五分(東) 라디오小說 半七捕物帖 岡本綺堂作 澤村田之助
◇同九時 時事解說

二十三日 (日曜)

◇午後零時五〇分 獨唱 一、愛國사랑가……랑作曲 二、小夜曲……토젤리作曲 三、小夜曲……슈ー베르트作曲 四、아베마리아……슈ー베르트作曲 五、들장미……슈ー만作曲 六、會배 그의노래……그리ー그作曲
◇同一時二〇分 푸른山中外 一、푸른山中 二、楚漢歌 三、배다리기 四、진난봉가 五、자진난봉가 六、변조난봉가 七、개성난봉가 邊淳愛
◇同六時三〇分 兒童劇 京城어린이放送會
◇同六時五五分 講演 [illegible]
◇同八時 吹樂 一、吹打 二、念佛 三、굿거리 四、방아타령 三昌吹樂團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三、雜歌 [illegible]
◇同九時 古談『彼死回生』 [illegible]
◇同一〇時 絃樂合奏 [illegible]

二十四日 (月曜)

一、唱歌와童謠
◇同七時五五分(札) 樺太廳長官 今村武志
◇同七時四〇分(札) 講演 樺太의夕 拓務大臣 永田秀次郞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世話狂言의研究(第四回)
◇同二時五〇分(東) 舞臺劇 [illegible]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山念佛 二、신아위(奚琴獨奏) 三、靑春歌 四、念佛도드리(短簫獨奏) 五、굿거리 六、메나리(細笛獨奏) 七、방아타령 八、唐樂 奚琴 池 短簫 崔 細笛 高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同七時 朝鮮日報 徐 [illegible]
◇同八時 常識講座 朝鮮敎育의特異性 總督府視學官 張膺震
◇同八時三〇分 自作詩朗吟 一、鄕愁 二、조약돌 三、海峽 鄭芝溶 四、靑노새 五、바람은南風 六、松花江배ㅅ노래 金巴人 七、新作路 八、해마다제철되면 九、삼구씨 金岸曙
◇同八時五〇分 唱劇調沈淸傳中「沈奉事皇城올라가는데」丁元俊 [illegible]
◇同九時三〇分 古談『비애』 車靑吾

第一放送
◇午前六時二〇分(東) 英語會話 講師 H·W·존스
◇同九時三〇分 [illegible]
◇午後零時五分 端唄 [illegible]
◇同六時(東) 이야기
◇同六時二五分(東) 趣味講座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講演 河野省三
◇同八時(東) 歌劇
◇同八時三五分(東) 新內 富士松
◇同九時(東) 浪曲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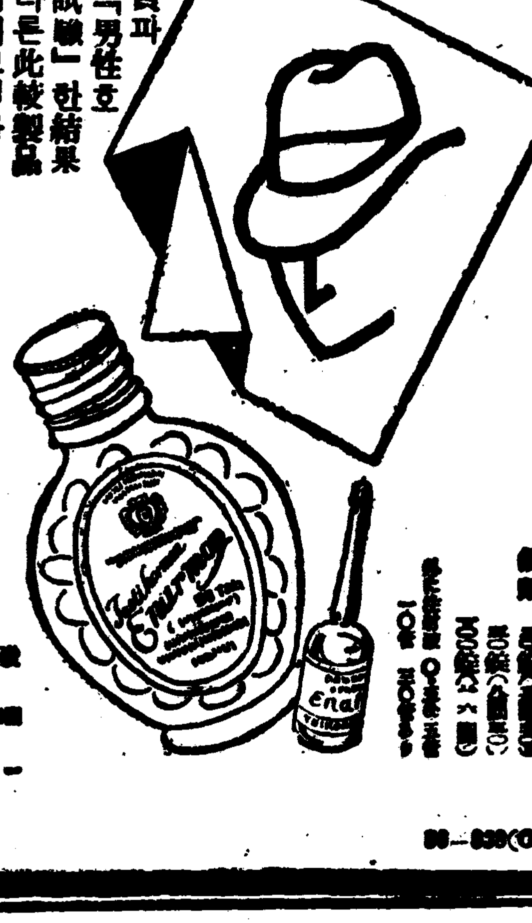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前六時卅分 農村講座 [illegible]
◇同九時卅分 [illegible]
◇同一〇時四〇分 [illegible]
◇同一一時一〇分 [illegible]
◇同一時二〇分(東)(大) 吹奏樂
◇同一時四〇分 [illegible]

養毛 美髮의 第一이다
美孃香油
美孃ポマード

軍手
이은자리업는軍手의 製造家募集
希望하시는분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八十四番地 常盤商會支店에照會 또는來談
東京市神田區五軒町九の一 ツギメナシ軍手發賣元 常盤商會本店 電話下谷三三七一番

特作流行歌
물새야 왜우느냐
달빛어린沙漠
荒野에해가저므러
新農夫歌
蔡奎燁
姜弘植

初老·高齡期
靑·壯年期
早老의疲勞感、能率의低下、倦怠感、頭痛、食慾減退、動脈硬化、性力減退
男性的特徵을發揮할수업는性徵不全、生殖器性神經衰弱、性障害、憂鬱症
純正 男性 호르몬
國際的으로效力이 旣承認된
エナルモン (에나루몬)
國際聯盟호르몬委員과 ー구쓰博士에依한「男性호르몬劑의效力比較試驗」한結果 에나루몬의效果는다른比較製品보다强力한것을證明되고잇다 (一九三五年七月)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帝國臟器藥社研究所

團成社
八月廿一日封切 每日三回 午後一時
片岡千惠藏
情熱의뿔바
絹の泥靴
올림픽特輯第二報

東洋劇場
靑春座第七週 八月十四日夜부터
一、春香傳
二、不具의안해
西大門町 電話光二五二四

禁止期間中의採貝 押收하여다 賣喫?

廿四叺中八叺을 解禁即刻에

鎭南浦漁組의怪處事

【鎭南浦】진남포와 서해안일대의 수천어업자(漁業者)들을 옹호한다는 구실노평남도당국에서 설치한 진남포어업조합(漁業組合)에서는 채패(採貝)금지기간내에 잡어왓다는 리유로 근근히 잡어온 조개(蛤)스물네가마니를 압수하여 두엇다가 채패금지기간이 밧금지난 지난 이십일일 어시장(漁市場)에서 팔어먹은기괴한사실이 폭로되여 어업조합의 처사를하여서 비난하고잇다 이제 그진상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본래채패금지기간은 칠월일일로 팔월이십일까지인데 지난십구일 최정화(崔貞和)란사람이 조개 스물네가마니를 잡어 구루마에싯고 진남포에 드려온것을 시장(市場)에나가서 소매하는박대실(朴大實)이란 녀자외 이십여명 여자가한가마니두가마니식사가지고 팔녀고하는것을황모(黃某)란 취체원이 발견하고 즉시 압수하여 어업조합에 보관하여 두엇다가 열여섯가마니는 바다에 다시 넛코 여덟가마니를 팔어먹는것이라는바 채패금지기간에 잡은물건이니만치 몰수한 이상 바다에내여놋는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물건을 팔어먹는다는것은 어업조합으로써 불법행위라고해서 일반의 비난이 만타고한다

조개빼앗긴婦女들 漁業組合에殺到

警察까지出動制止

채패금지기간내에 잡은 조개라고 몰수하여두엇다가 기간지내는즉시 팔어먹은 어업조합을 비난한다함은 별항과갓거니와 무슨 영문인지도 아지못하고 행여나 멘훈이라도 버리먹으러고하든 이십여명부녀들은 밋천까지빼앗기고 억울함을 참고잇든중 그조개가 지난이십일일 신흥리시장(新興里市場)에 나온것을보고 극도로 분함을 참지못하여 당일오후다섯시경 진남포어업조합으로 이십여명 부녀들이 달녀가서 우리의조개를 엇지하여 빼앗서 팔어먹엇느냐고 어업조합 당국자들을 추궁하는등 대소동을일으키여 일시 형세가 험악하엿슴으로 즉시 억량긔리파출소(億兩機里派出所)경관대가총동원하여 제재하엿다는바 관게각방면 사람들은 다음가티 말한다

理事高橋氏談 우리어업조합으로서는 취체하엿든조개를 팔어먹엇다든지 한일은 절대업습니다 어제까지가 채패금지기일인대 이십일일 아침조개배가와기로『세리』를 하여준것뿐입니다 운운

漁業者張某談 나는어업자의 한사람으로 매일아침 이어시장에나옵니다 이십일밤열두시까지가 금지기일인대 이십일일새벽에 어대서 조개를잡어가지고왓겟슴니까 오날아침은 조개배는 하나도드러오지안엇고 어제시장에 나간것은 전날잡엇든 조개가 분명합니다 운운

某女商人談 우리들은 일이원의소자본을가지고 조개를 사서 시장에나가 소매를하여 근근히 사러가는 여자들인데 기한전에 잡은것이라고 빼앗기에 억울한 마음이야 한이업지만 할수업다하고 실로 눈물을흘리고잇슬뿐이엿는데 그조개는 다시 바다에버린다고하기에 그런줄만알엇드니 그조개를두엇다가 그자들이 오늘팔어먹엇다니 이런분할데가 어데잇겟습니까 우리는 목이다라나도 조개갑을밧고야 말겟습니다하며 눈물을흘니엿다

海南青年會主催 衛生大講演會

演士는閔醫博士

【海南】우리의 생활전선에막대한 위협과 장애를바듬은 위생여하에 잇다는것을 착안한해남청년회에서는 그회의 한사업으로 오는팔월이십삼일밤 해남공회당에서 위생강연회를 개최키로 되엿다는바 강사(講士)는현재광주에서내과(內科)에 명성이 놉픈 의학박사민병기(閔丙祺)씨로 초청키로되엿다는바 해남에서는 처음잇는일이요 또일반이 알어야 될연제인만큼 벌서성황을 예기한다는바 동회에서는특히 가정주부가 만히래청하기를 바란다는바 당일 연제와연사는 아래와갓다한다

現代醫學의傾向 千公出(醫學生)
寄生虫에對하야 閔丙祺(醫師)

細民階級에大福音 開城隣保館設置

寄附金募集까지認可

【開城】개성의 세민계급을 구제할방침으로 멧멧유지들이 일즉부터 린보관(隣保館)설치에대하야 약삼만원가량을 모집하랴고 로력하여오든바 지난이십일부로 긔부금인가가 도당국에서 정식허가가 나왓슴으로 이제부터개성의자선 사업긔관은 새로생길모양이라한다

體育俱樂部組織

【碧潼】평북벽동군우장시(碧潼郡雲場市)는 그호수 이백호미만인 한 적은 부락에 지나지모하엿스나 근년에 홍왕한금광경긔로 급속적 발전을 보이여지금엔 칠백여호에 니르러 실로 신흥기분이 농후한곳으로서 장래발전도 크라라는바 아즉까지 시민의 보건상 필요한하등에시설이나 지도과관이업서 일반은 크게 유감으로 역이며바 일반유지의발긔로 지난 얼마전에우시체육구락부(雲時體育俱樂部)가 조직되엿다는데 지금까지 가입되회원은 삼십여명이라는데 체육에 톳잇는이는 다수이 가입하기를바란다하며 그역원은 다음과갓다

部長 金尙沃 副部長 金泰洙 陸上 李在源 籠球 劉基明 野球 金泰洙 庭球 安文國 蹴球 宋丰 永上 安文國 書記 公炳晩 會計 裵鎭濟

東邊道有史以來 初有의大洪水亂

移住同胞農作物全滅狀態

箇中에도淸原縣이尤甚

【山城鎭】금번의 홍수는 동변도(東邊道)일대 유사이래 처음보는 홍수로서 이주동포들의농작물은 전멸상태에 달하엿고 산성진에는 성이문허저서 십여호가 침수되엿스며 류화(柳花)통화(通化)방면에는 교통까지 두절되엿섯는데 봉길선(奉吉線)남구전(南口前)과 창석(倉石)사이의 선로 약이백메돌이 끈허진지 십여일이되도록 아즉도 개통치못하는 현상이며 그중 제일 심한곳은 청원현(淸原縣)이란바 청원현의 농작물은물론 현재 가옥이 류실되고 식량이 절핍되여 긔아선상에서 헤매이고 잇다고한다

本社調査班員이 災地淸原向發

十七日山城鎭에서

별항=청원현하 수해동포참상의 실정을조사키위하여 본사에서는 산성진지국원을 십칠일오후한시산성발렬차로 재지로향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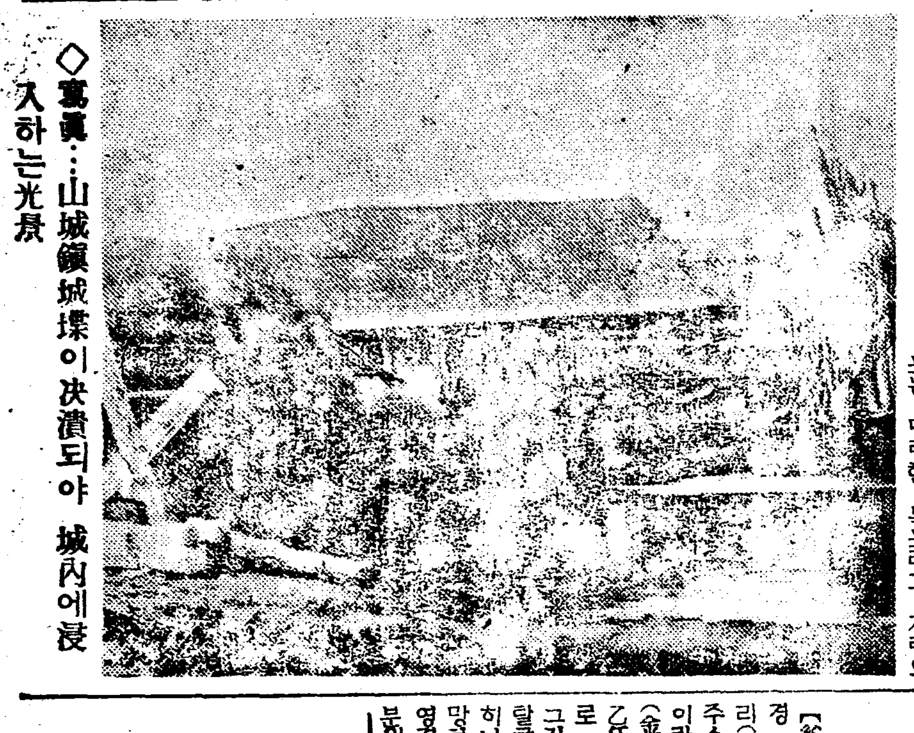
朝鮮人民會에서도 實情調査出發

별항=청원현(淸原縣)리재동포의 처참한 실정의 보고를접한 산성진 조선인민회에서는 실정을 조사키위하야 리사 전제림(全佛林)씨를 현지로 파견하엿다한다

慰安音樂盛況

延安留學生主催

【延安】연안류학생 친목회『延安留學生親睦會』주최로 일반시민을 위안키 위하야 지난 십팔일오후 팔시경에 연안례배당내에서 음악대회를 개최하얏든바 대성황을 일우엇다고한다



◇寫眞…山城鎭城堞이決潰되야 城內에浸入하는光景

前科者의가짜院長

假面綻露된三省醫院

大平壤한복판에서이짓

【平壤】의학전문학교출신의의학사로 성병, 폐병, 피부병, 위장병의전문의라하면서 평양부내한복판인 경상리(慶上里)에 삼성의원(三省醫院)을설립하고 자긔가 원장이되여 태연자약하게지나든 가짜의사가잇섯다 평양부내앵정(櫻町)구십구번지 절도전과일범 강혁(姜赫)이라는 강운일(姜雲一)(二七)은 자긔의조선대대로 의사로 일홈이 놉고 자신도 의사문중의 태생인만큼 어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햇다고 허풍을떨면서 전긔삼성의원을설치하고 금년오월이십일부터 선전〃빼라〃를가두에뿌리고 개업한후 진찰에착수하엿다 그진찰 원래가 엉터리인관게로 그 이나 치료방법이 물론수상할것이나 원체가 재조가잇고 이야기가 교묘한 강운일은 상당히 만흔환자를 치료해왓다 그러나 반면에 죄악의근성은 발휘하기 시작하여 부외모공립보통학교 某(公普)훈도 리모(李某)가위병으로도 치료를바드려온것을 긔회로 자금융통을 요구하고 공동경영이라는조흔미끼로 일천이백원을 등채로 삼킨것을 필두로 취직붙구실로 금전을편취하고 전매국에 친근한가부가 만타하여 연초소매점을 터준다고 금전을사취하는등 교묘무쌍한 사긔횡령을수업〃벌행해가시고 진남포(鎭南浦)어떤 〃카페-〃에잇는 꼿가튼 녀급을 애인삼어 다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해왓다 그런데 이죄악은 공동경영의명목하에서 사긔당한 모훈도의고소로 급기야청천백일하에 폭로되엿것이다 대동서에서는 고소를 받자 즉시 활동을개시햇슬때에는 벌서소위강원장은 바람과마저 어대론지 다라나고 마럿스므로 각서에수배하여 행방을 엄탐중 진남포부내 그정부의집에 잠복해잇는것을 체포하여목하 대동서에서 엄중취조를 계속하고잇다

夏期聖經校修了

【舍人】평남순천군사인기독청년회에서는 하기휴가를 리용하여 가지고 하기아동성경학교를 사인례배당에서 개시햇다함은 기보와갓거니와 그동안 배움에굶주린남녀 어린이 일백오십여명을 수용하고 문맹퇴치와 정신수양에 전력하여오다가 지난십륙일오후팔시에 제사회 수업식을 성대히 거행하엿다는바 아모보수도업시 전력을 기우려지도하여온청년유지들에게 찬하하기마지안는다고한다

會計帳簿等僞造 數千圓騙取消費

鎭海海軍某工事場大疑獄事件

八月下旬에公判廻附

【鎭海】진해해군○○공사장에서 일대의옥사건이 발생되야 진해헌병분대에서 관게자를 인치하고 극비밀리에 엄중히 취조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에대하야 그동안 취조한결과 유죄로 확정되야 금월말 혹은 래월상순경에 공판이 개정될터이라는데 그자세한 내용은 진해해군○○공사장 주임기수 강본모(岡本某)는 소화십년팔월이래 관게공사의장부급 일계표(日計表) 월말보고등에 금액을 위조하야 사취한금액이 약일천오백원에 달한다는바 해금액은 대부분 진해시내 각요리점에서 유흥비혹은 연회비로 소비하엿다하며 지난시월부터 금년륙월까지 해공사의 청부업자 매림조(梅林組)에게 공사중여러가지 편의를 도와준 보수로 수십회의 뢰물을 바든일이잇는데 금액이 합계 천여원에 달한다하며 또해군기수 대총모(大塚某)는 진해읍비봉리(鎭海邑飛鳳里)해군모공사장의주임기수로서 근무중 지난가을부터 금년봄까지에 매일 일계표(日計表)인부보고서등을 위조하야 인부공급(人夫供給)을 청부한 진해시내에 거주하는 청부업자 항천충조(恒川忠助)로 하여곰전긔 위조한장부대로 인부임금을 청구케하야 약오천여원을 편취한후 해금액의일부는 전긔항천에게 보관하여두고 남어지일부는 역시 료정에서주색에 전부소비한사실이라한다

私利에눈이어두어 痲藥代用藥密賣

木浦署衛生係에서事實探知

犯則醫師兩名을取調

【木浦】목포의자랑은 무엇보다 〃모히〃중독자의 완전청산이다 그러나 마약중독자(痲藥中毒者)치료하는 사무에 종사하엿고 또 마약중독자근절운동에 십분리해를가진 의사가 민족적양심에 어그러지고 사회도덕에 위반되는 리의에양심의눈이 어두워저서 다량의 모히대용약(代用藥)을 암암리에 판매하야 리익을 취하는 사실이 목포경찰의 취조로 탄로되여 큰센세이슌을 일으킨 사실이잇다 소화오년도부터 전남마약류 중독자예방협회 목포지부(痲藥中毒者豫防協會木浦支部)를 조직하고 관민이 일치협력하야 막대한경비를 소비하여 가며 그퇴치에 노력한결과 소화십년 말에이르러 수용환자총수 칠백사십일인은 전부완치되여서 정업(正業)에 취직하야 마약중독은 완전히 청산이되여 목포는 명랑한 목포라고 자랑하엿다 남어지이삼인의 중독자가 숨어잇섯스나 목포경찰에서는 엄벌주의로 취체하기때문에 모히환자는 완전히 일소가 되엿든바 금년오월 초순부터 천만의외에도 모히환자가 부내에 배회하는것을 발견한 목포경찰서 위생계에서는 크게당황하야 중독자를 검거하야 엄중취조하는동시 마약류출처를 탐사한결과 부내모모의사 두명도다량의 모히대용약을 판매하며 주사를하엿다는 사실이 판명되여 이소문이 세간에 전파되자 일반은 대경하야 날카로운눈으로 경찰의 처치를 주목하고 잇든바지난십구일 목포서위생계에 부내남교동 모의원장 박모(府內南橋洞某醫院長朴某)와 동북교동모의원장 김모(北橋洞某醫院長金某)가 나타나서 마약취체령위반(痲藥取締令違反)의 범죄피의로 엄중한 취조를바덧다는데 취조한 사실의 내용을 듯는바에 의하면 전긔 두명의 의사는금년삼월경으로부터 팔월에이르기까지 이사건의 피의자로 류치취조중에잇는 리룡이(李龍伊)외 오명에게약 백회나 모히대용약『네오민』과『코가인』등을 판매한것이판명되여 동서위생계 취조는일단락을 지어서 일건서류를 지난 이십일에 동서사법계(司法係)로넘겻다한다 일반사회에서는 경찰당국의 처분이엇지나 될는지크게 주목중이라한다

危險한돌파리女醫

子宮病治療해준다고

멀정한女子를죽게해

【釜山】지난 십팔일 오후령시경 본적을경남청도군매전면지전리(淸道郡梅田面紙田里)에 두고 주소부정한 은분임(殷粉任)(三〇)이란녀자는 김해군진영면서우동(金海郡進永面西牛洞)윤을임(尹乙任)(二三)이가 자궁병(子宮病)으로 신음하고잇슴을보고 자긔가 그자궁병을 곤치겟다고 칼로서 탈궁한쪽을 끈엇섯는데 피가만히나서 동일오후여섯시경에 사망하얏슴으로 이급보를접한 진영경찰서주재소에서는 전긔 은분임을 인치하야다가 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西井里支局에서 同情金品募集

三南水災民을爲하야

【西井里】긔보=금번삼남수해는 갑술년이래 광범위의 피해정도임으로 본보서정리지국에서는굶주리고 헐버슨 리재민을 위하야 동정의긔부를 모집하는중인바 금품의다소를 불고하고 만흔동정이 잇기를바란다고한다

天才的少年 피아니스트

群山徐承昊君

【群山】평양에서 천재적유년제금가 백고산(白高山)군의 출연으로 조선악단에 방금화제가되여잇는요지음 군산에서도 천재소년〃피아니스트〃라고 칭호를밧는 소년한사람을 이제조선의악단에 소개하야 그의일홈을 널리중외에 알리라한다 그는군산부약송정(群山府若松町)에사는서홍선(徐鴻善)씨의 장남으로 방금 군산공보교 오학년에 재학중인 금년십이세의 서승호(徐承昊)군으로서 그는작년봄부터『피아노』에뜻을두고 군산부영정(榮町)중야악긔점(中野樂器店)주인김영갑(金永甲)씨로부터 아래개인교수를 바더오든터인데 교수바든지 불과일년여에 이제는제아무리 난곡(難曲)이라도 조금도 힘들드리지아니하고 친다고한다 그리하야 벌서부터 그의기능이 일반에게 인정되바되여 지난십일일밤 군산공회당에서열인 군산영신유치원(群山永信幼稚園)음악회에서 피아노독주(獨奏)

奉天

第一回 全滿個人庭球大會

△日時 八月廿九、卅日兩日間

△場所 奉天加茂町公會堂코-트

◇主催 朝鮮日報社奉天支局

◇後援 奉天朝鮮青年會

愛慾의彼岸 【82】

李光洙 作 金康穆 畵

문임은 이 경우에 김장로에게, 제 결백함과 아울러 제 마음이 어떠케 노픈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잇는드키 생각햇다. 문임의 속에는 김장로의 눈 박게 나기실흔 생각이 잇섯다.

『제가 말슴 엿쭙지오. 은주씨가 오래 두고 혜련이를 사모햇서요.』

『혜련이를? 은주가 혜련이를?』

하고 김장로는 또 한번 놀랏다.

『네. 퍽 여러해전부터 사모햇던모양이야요. 그리고도 입박게 내어서 말은 못하고 은주씨 혼자서만 애를 태고 잇던 모양이야요. 그러다가 얼마전에, 지난 봄입니다. 은주씨가 혜련이헌테 자긔 속을 말햇더래요. 그러니깐 혜련이가 똑 잡아떼엇거든요. 그러니깐 다시는 두말을 아니햇지만 은주씨 속이야 오죽하겟서요? 그래, 학교에서 하로는 혜련이가 저를 보고서 은주씨 걱정을 한단 말슴이죠ㅡ 어저께 그러케 똑 잡아떼어서 거절을 햇는데 어찌되엇는지 모르겟다고. 그러케 뜻이 굿고 말이 업는 사람이 그런 말 내기가 얼마나 힘들엇겟느냐고. 아마 무척 무안도 하고 낙심도 해서 혹 무슨 일이 잇슬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상회에 가서 은주씨의 낫색도 살피고 눈치를 좀 보아달라고. 그러고 마음을 좀 떠보고 위로도 좀 해달라고 혜련이 절더러 그런단 말슴야요. 저도 은주씨 처지가 가엽고 해서 멕버상회에를 가 보앗서요. 혜련이가 하라는대로 말도 해보고요. 그런것입니다』

하고 문임은 결론을 무엇으로 할는지 몰라서 입을 다물엇다.

『원 저런 놈 보앗나? 저런 밋지못할놈 보앗나. 괘씸한놈 가트니』

하고 김장로는 부르르 떨엇다.

이 모양을 볼 때에 문임은 강한 반감을 느꼇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은주씨가 혜련이를 사랑하는것이 무어이나빼요? 왜 못사랑할 사람이야요?』

하고 빨끈빨끈하게 쏘앗다.

『아니 그러케 아니지마는ㅡ』

하고 김장로는 미속햇다.

『저는 은주씨를 동정해요. 은주씨가 잘되는것을 보지안코는 저는 아모데도 혼인 아니할레야요. 찰하리 은주씨하고 혼인할레야요』

『잘 되는것을 본다니?』

하고 김장로는 반문한다.

『혜련이하고 혼인을 햇스면 제일조쿄요. 그랫스면 제일조켓서요. 은주씨가 여간 조흔사람이 아니야요. 또혜련이를 여간 사랑하는것이 아니구요. 혜련이도 은주씨를 퍽조경한답니다』

하고 문임은 김장로의 눈치를 엿본다.

김장로는 고개를 숙이고말업시 얼마를잇다가,

『그럼 혜련이하고 은주하고혼인을 하게되면 문임도 나하고 혼인을 한다말이지?』

하고 김장로가 문임의 어깨에 손을 언즈며 다진다.

『네』

하고 문임은 서슴지안코 대답해버렷다. 그라고는 문임은 제가 무슨 영웅적인 일에 제몸을 희생이나 하는것가튼 쾌감을 늣겻다. 그보다도 문임의허영심의 탐욕에 도덕적인 이유를 붓칠수가 잇섯슴을 깃버한것이다.

『문임은 은주와는 아모 기픈 관게도 업지?』

하고 김장로는 문임의 정조에 대하야 기픈 관심을 가진것이 말끗마다 보엿다.

『아이. 아모것도 업습니다』

하고 문임은 똑 잡아떼엇다. 그리고 김장로가 제 정조를의심하는것이 괘씸한것가티 생각하엿다. 그리고 속으로, 나는진실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다젓다. 그러케, 생각하면마음이 든든해지는것 가탓다.

『그럼 내 혜련이더러 은주하고 혼인하라고 말해보께』

하고 김장로는 또 한번 문임의 어깨에손을 언젓다. 문임은 담대하게, 한 손을들어서 제어깨에 언진 김장로의 손 우에 언젓다. 나무로 깍근드시 딱딱한손이엇다.

젊어지는化粧液

化粧下에……

化粧이밀니기시운 夏節의化粧에는 꼭 젊어오는 化粧水구라부乳液 또는藥用구라부 美身크림을 使用하시요 新發見의前例업는 綜合호루몬은 皮膚로부터 吸收해지고 注射와 가튼 作用이生理的으로살을 젊게하는 優良한 效果를보입나다 따라서化粧이 밀니는일이업시 정말 선선한여름化粧이됩니다 더욱이 就寢前에 살에잘발라두고보십시요、그 翌朝에大端히 살이 부드럽습니다。

벗꺼름 除去에……

强烈한 太陽光線은 醜한벗꺼름이생김으로 夏節美容의 脅威가됩니다 그러나 구라부乳液또는 藥用구라부 美身크림을발은다면 如此한 憂慮는解消됩니다 이것에配合된專賣特許의 製法에依한 膵臟酵素의作用으로 皮膚의異狀色惡脂肪을 藥理的으로 分解解消함으로 벗이히고 아름다워져 훌륭한히벗꺼름을 淸掃합니다

專賣特許

젊어지는化粧水

綜合ホルモン含有

クラブ乳液

구라부乳液과最近製造綜合호루몬含有의구라부美身크림과混合하여 使用하시면一層效果的입니다!

50전 60전

朝鮮內金融體系

普銀間自由競爭보다 目下縱的壓迫이深刻

(下)……申泰環

그래서 日本內地의 一縣一行主義의 反撥과 自由競爭防止의 主眼으로 朝鮮內普通銀行의 大合同을 企劃하고 一面으로 그 副作用 或은 補償的 工作으로 支店銀行撤去의 一路까지로 이미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小銀行을 合同하야 大銀行을 맨들고 이로써 大藏省當局의 方針과 政策을 全面的으로 徹底化케하야 그 遂行을 期함에 잇스므로 朝鮮金融界도 日本內地의 金融機關 統制의 强化를 따러서 一大轉換期를 압두고 잇는 傾向이 만케되어 잇다 그러면 이 所見대로 展開될것이라고 생각하여야 올흘가 그러치안코 이것은 아주 僅少한 可能性이 잇는 所見이 아니라고 筆者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이다.

×

이에 잇서 먼저 現在의 朝鮮內普銀이 어떠한 陣容압에 잇는가함을 살필必要가 잇다고 생각한다 卽 朝鮮內普銀의 最多記錄十一이 決코 만흔數가 아니엿스나 그동안 當局者의 減少銀行整理合同方針으로 오늘에는 그數가 七個普銀에 그치고 말엇스며 다만 이七個銀行의 支店網이 그整理된銀行을 支店으로 또는 新設의支店으로 새로 進出해온 事實이다 그러나 이 支店網에 잇서서도 當局者는 銀行間의 自由競爭을 막는다는理由 압에 併立의支店設置를 許치안는方針을 取하고잇다 그러므로 지금에 잇서서 普銀間의 自由競爭이 全然업다고는 말키어려우나 實際에잇서서 그競爭이라는것은 그다지 甚大한것으로볼 程度에 안됨으로보면 다 더구나 오늘의七個普銀에 잇서도 京城에 東一、商業、漢城、海東의四銀行이 잇고그밧게의 三個銀行은 南鮮에 잇는만콤 그正面的競爭은 地域的으로 거의 防止되고잇는터이다。

×

만약에 그自由競爭에 對한 深刻한實例를 일부러 들라고 하면、或은京城內에잇서서 普銀의支店이 漢城되고잇슴을 가지고서 말할는지 모른다 即 東一、商業、漢城의支店이 東大門 南大門驛前等에 各各支店이 늘어 잇스므로 自然 同業者間 各支店의 去來處에對한 競爭이 相當한것이 事實이다、이에 對하야는

이미 某普銀當局者로부터 市內支店整理의 必要를 提唱한 바가 잇섯고 또는 當局으로 부터 何等의 對策을 講究하여오는 눈치가 보이지도 오래 前부터의 일이다 이것은 問題를 삼으라고하면 問題가될 수가잇다 그러나 오늘에잇서 普銀統制强化에 直接으로 큰 關係를 맷고잇는 問題가 아니라 枝葉에 끄치는程度의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고 이 市內支店은 商業金融이 旺盛하든 當時에 設置된것으로 數字가 激增을 보고잇는 만큼 앞으로 그必要가 업지 안흘가한다 그뿐아니라 大京城으로 그城內가 擴大되는 오늘에 가지고는 普銀의 市內支店을 도리혀 늘리는것이 當然한 結果가 될는지도 모른다。

×

이와가티 朝鮮內의 普銀은 그동안 弱少한 銀行을 全部 整理하여 버리고 오늘에 잇서는 이만한條件을 가추면 完全하다는 目標압에서 所定된 命令에 依하야 存續되어오는 七個의普銀이 잇슬뿐이다 또는 그들은 自由競爭이 深刻하다는것보다도 縱的으로밧는 壓迫이 甚大하다 그러므로 만약 普銀의窮境을 打開하야 圓滑히 中小商業者의 金融의 利益이로써 普銀을 圖하라고함에는 무엇보다도 縱的으로 밧는壓迫의 除去가 가장 緊要하다 이것을 다시 하면

(一) 殖銀、金組의 臨時的商業金融을 빨리 廢止할것

(二) 朝鮮信託으로하여금 普銀의 領域을 侵害치안을事

(三) 都市金融組合을 廢止하야 普銀으로하여금 小額金融에 잇서서도 그機能을 充分히 發揮케할것

等에 着眼하여야 될것이다 그러나 지금에잇서서 當局者의 態度를 보면 이에 손대일傾向이 거의全然 안보히고 오히려 普銀의 그自體에 對한 統制强化로써 最大한方策을 삼음에 기울리는 듯 보힌다。(筆者는 漢城銀行本店) ―完―

朝銀과殖銀의 "機能分野確立"

朝銀은藏相을通하야 決定코자

그러나迂餘曲折難免

金融機關의 統制가 强行되는此際 今般 朝鮮銀行과 朝鮮殖産銀行과의 機能分野의 確立이 絶叫되어 注目된다한다。即 殖銀은 本來 不動産金融으로서 그使命을 한것인데 朝銀이 滿洲方面에 進出中 商業金融에 進出하고 現在는 不動産貸付의 最高限度 即鑑定價格의 三分의二의 幾三分一擔保力에對하야서는 短期商業的 貸出을하고 잇스며 船舶會社 其他에도 積極的으로 投資하는傾向이잇서 從來부터 이것을危險視하는便도잇다。그러나 殖銀의監督은 總督府에잇슴으로 現地의 特殊事情을 强調하는 殖銀에對하야 그機能分野의 確立을 强要키는 不可能한狀態인一方 朝銀은 滿洲後退에依하야 顯著히 活動範圍가 縮少해진터임으로 南新總督의 就任을機會로 朝銀으로서는 藏相을通하야 朝銀과 殖銀의機能分野를 明確히 하야달나는意向인것갓다。近間藏相 總督間에 具體的協議가잇슬모양인데 總督府와 緊密한關係에잇는 殖銀으로부터 商業金融을 廢棄함은 자못困難하야 迂餘曲折을 難免하리라한다

"金組非組合員의 預金을廢止하라"

銀行側의意見이擡頭

朝鮮金融界는 日本內地의 物資를 移入하는 關係上 物價高는 必然的이나 그만큼金融은 梗塞치안코 部分的으로 硬化할뿐이다 預金以外에 資源이 업는銀行은 貸出膨脹에 比하야 預金은 안늘고 도리혀 所持資金이 넉넉치못한모양이다 그래서 朝鮮金融統制도 整備하기前에 金融組合의 非組合員預金을 撤廢하라는말이 相當히잇다 現在金組預金은 約一億六千萬圓程度로 그中 八割 即一億二千五百萬圓은 組合에 關係가 업는 一般의 預金이라고한다 그런데 金組는 最近數次에 亘하야 金組債券을 發行한바 이것은 모두 好條件이며 一流債券으로 日本內地金融市場에서 取扱하는터이라 이와가티 資金吸收의順調이므로 金組는 今後의 資金은 債券에 依하야 新規의 非組合員預金을禁止하고 또는 制限하라는말이 銀行界에서 擡頭하는터이라고한다

米株兼營 申請을不許

總督府는 朝鮮取引所證券部取引員山本籌에 對하야 米穀部取引員兼營의 認可申請에 對하야 이것을 受理치안이 하엿다 取引所關係者間에그 理由에對하야 議論이잇는데 總督府의 意向은 米穀自治管理法實施에伴한 米取의 根本的改革을압두고 新取引員의 認可는絶對不可라는것인것가타야 이에依하야 想像할수잇는것은 總督府에서도 朝鮮의 米取改革案을 立案中으로 이準備는 意外進捗된

穀物大會準備

主催地의咸興에서

【咸興電話商通】第三回穀物協會聯合大會는 迫近하야 主催地인 元山 咸興에서는 準備中인데 丸元穀物協會에서는 卄三日午前九時부터 咸興府會議室에서 評議員會를 열고 大會의大綱方針實行에對하야 具體的協議를 하고 大會事務의 全面的促進을圖키로 되엇다 그러고 今大會의豫算은 三萬九千七百圓으로 協會와 官廳에서 二萬六千圓을 擔出하고 그남어지는 一般寄附에依키로된바 大會役員은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고

▲總裁 咸南知事 ▲副總裁 三隅丸元協會長 ▲名譽顧問 兒島咸北知事、孫江原知事、野口朝窒社長

禿魯江의發電

長津水利權에抵觸

禿魯江은 鴨綠江支流의 禿魯江을 堰止하야 一大貯水池를築造하고 二十萬키로의 水力發電을 計畫 右電氣로서 新義州에 아루미工場을 經營할計畫을 傳하든바 右禿魯江의 上流長津江의 水利權은 長津江水電이 掌握하고 잇슴으로 禿魯江의 開發은 旣得權의 侵害로될터로 計畫을 變更치안흐면 實現이 困難할터인데 그計畫을 變更하야 着手하면 貯水面積의 縮少等으로 發電力이 顯著히 減少할것으로 事業採算이 果然有利한지 疑問시되고 特히 長津江水電에서는 長津江上流의 水利權을 利用하야 第二堰堤를 築造키로되엇슴으로 右水利權의 讓渡는 一層困難하리라한다

京春鐵道實測

京春鐵道에서는 去六月二十五日부터 金谷、加平間四十五키로의 第一回實測을 開始하얏는데 繼續하야 加平、春川間의 實測에着手하고 來卄五日終了하기로 되엇다 最後의 京城、金谷間은 來春二月末까지에 測量하고 解氷을待하야 四月頃부터 金谷、加平間의 建設에着手키로되엇다한다

滿洲棉花增收

七割程度의豫想

【奉天電話商通】今年은 世界的으로 棉花增收가 豫想되어 紡績界는 一陽來復의 觀을 呈하얏는데 滿洲棉花公司의 調査에依한 全滿의 棉花收穫豫想은 大體昨年에 比較하야 七十%의 增收가 豫想되고 即 今年度의 發芽反別은 約八萬七千町步로 昨年度에 比하야다 十二%의 增加이엇스나 五月中旬의 冷害와 其後의 連雨로 發育이 遲延되어 棉花中心地인 遼陽縣에서는 六月末前後 中途에서 蕎麥等으로 改作된것이잇고 反別減少를招來하얏는바 七月에 入한後는 天候가回復되고 生育을 挽回하야 蓋平縣及大石橋方面의 陸地棉花栽培는 作況이자못 良好하야 反當百八十斤以上의 豊作으로보이엇스나 七月末狀態로는 實棉一億一千百六十餘斤 繰上綿三千萬斤의 收穫이 豫想되엇스나 其後의 産地狀況은 欠株가 意外로만코 蓋平縣遼陽方面共히 反當百二十五斤으로 平年作바게 안되는모양이다 現狀대로推移하면

▲收穫反別七萬三千五百町步 ▲實棉收穫高一億二百十五萬斤 ▲繰上豫想三千七百七十萬斤 內外로豫想되어 昨年度에 比較하면 反別二十九% 收穫七十%의 各增加를 示하엿다한다

漁組中央金庫創設

兩水産會社聲明

【東京電話同盟】農林省은 漁村金融改善을 爲하야 産業組合 中央金庫에 漁業組合을 加入케하고 이에 드는 出資金四百萬圓中 二百萬圓을 二年繼續으로 政府出資할方針을 決定한바 帝國、大日本兩水産會社는 이 政府方針에依하야 漁業組合中央金庫를 獨立的으로도 創設함을 決議하고 다음의 聲明書를 發하엿다고한다

現下의非常時局에잇서 庶政改善은 國民生活의 安定을 期하는것이다 國策을 確立하야 이것을 施行함은 國民生活安定의 最大條件이될것이다 그中 漁村經濟更生振作을 圖키爲하야 漁村金融機關을 整備하고 資金需給의 根本的改善을促進함은 目下의 急務이다 그러므로 此際全國四의 漁業組合을 基礎로하는 漁業組合中央金庫를 創設함을 政府에要望하고 그實現을 期함

米日爲替保勢

【京城二十一日發同盟】卄一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賣二十九弗四十八仙으로保勢 買二十九弗四十六仙으로保勢

長津江의堰堤增設

長津江水電에서는 第二發電所가來夏完成될터이에 伴한 貯水池堰堤의 嵩上工事完了를 待하야 第三發電所建設에 平行하야 集水面積의 擴大와用水路의 增加策上現在의堰堤下方에 第二、第三堰堤를築堤키로되엇다

朝運人事異動

朝鮮運送會社에서는 卄一日附로서 다음과가티 異動이 잇섯다고

▲命仁川支店助役(海運課助役) 澤村重雄 ▲命海運課助役(仁川支店助役) 渡邊湧治

取引停止

(八月十九日) 物産貿易委託業 京城府壽松町一八番地 三信商會 朴宗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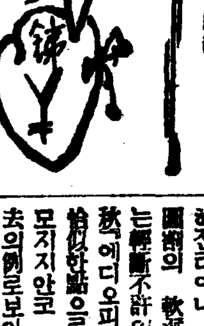
經濟界消息

○滿洲輕金屬會社創立 【新京電話商通】曩者 設立準備中이든 滿洲輕金屬股份有限公司는 具體化하야 九月中에도 創立될모양인데 投資額은 滿鐵一千萬圓 日本關係業者 一千萬圓 滿洲國五百萬圓 合計二千五百萬圓 이다 工場은 撫順에 本社를 新京에둘 豫算査定으로 年産額은 四千瓩、製品은 日本內地業者와의 競爭을 避키爲하야 滿洲에 供給하는外 市場을 차저서 輸出할터이라고

○朝運退職慰勞基金制 朝鮮運送會社에서는 曩者 社員의優遇方法을 研究立案中이더니 이번 退職慰勞基金制를 設置키로되야 增田庶務課長이 渡東하야 中野社長의 決裁를 어더 合으로 來期決算부터 右基金을 計上키로 되엇다고

○瑞豊鐵道認可豫備調査 朝鮮瑞豊의 黃水院江水電開發에 伴한 瑞豊鐵道(七十키로)는 年內에 實測하고 來春初에 着工하기로되엇슴으로 鐵道局에서는 認可에압서 調査키爲하야 卄一日鐵設課洗井技師 一行五名이 現地調査에出張하고 이結果報告에基하야認可키로되엇다고

經濟井蛙



○ 今年은 雹害가 한참 未滿으로 製氷會社 打擊 더위가 甚치안어 조라 할지 모르나

○ 今年은 稀有의 低溫 旱炎 水災에 低溫까지 겹치스니 凶作豫兆? 丙子凶作의 迷信이 迷信이 안되고 마는모양

○ 農家經濟內年作 朝鮮凶作 그結果는 凶作에 米價高도 別로 바랄수업게 될듯

○ 旱、水災의 罹災者 아니라도 一般 農家經濟가 벌서 걱정

○ 金組預金의 八割인 一億二千五百萬圓이 非組合員의 預金이라고

○ 銀行側에서 非組合員의 金組預金을 制限하라는 意見이잇다는데 抗議前에 먼저 어째 金組에 預金하는지 그 原因을 생각해볼일

○

朝鮮石油價引上

◇……一箱에一圓昂騰

朝鮮內 石油販賣業者는 二十二日協議한結果 日本內地石油値上에 追隨하야 石油一箱에 一圓 (一까론十錢減)의 値上을 하기로 決定하얏는데 이와가튼 大幅値上은 松方露油輸入暴落後의 記錄的大値上以來의일로 商工省이 이것을 容認한것은 燃料國策樹立에 理由한것이라한다

濫賣防止協議

京城石油業者가

京城府內石油業者는 二十二日午前十時부터 朝鮮호텔에 會合하야 까소린値上에압서 各業者의 濫賣를防止하야 市價를 維持키로한後 까소린値上問題를 具體的으로 協議하얏다

重要商品界事情

人絹界新紛糾?

中小會社要求說

大阪、昭和의 兩非加盟會社를 中心으로한 人絹界의 紛糾는 지난十三日 商工省의 裁定에 依하야 結末을 告하엿는데그 人絹聯合會의 臨時總會는 經過報告와 承認을 議題로한 十九日午前十時부터 新大阪호텔에서 當十餘社를 叫이고 十八社代表의 出席者에 열렷다。

◇

그 開催前에 이번에 裁定에 依하야 人絹 生産會社가 完全한 統制에 成功 되엇스나 새로히 內部에 發生한 大會社對 中小會社의 對立이 어떠한 形態로 表面化할가、다시 從來統制圈外에 잇든 벰벨크絲에對하야 어떠한 要求가 提出될는지 이諸點으로 波瀾豫想이 잇섯든바 東洋레-온 辛島理事長會社로부터 다음과가튼 簡單한 發表를하엿다

一、大阪、昭和兩盟外社에對한 商工省의 裁定을 異議업시承認

二、右兩社에對하야 正式加盟申請을 勸誘 그러고 加盟期日은 四月三十日現在에 遡及함

◇

그러나 當日會議進行을 가지고서 推知하면 同會議는 以上과 가티 圓滿히結果를 보앗다고 말키어렵다 即會議中에 日本레-온 相베벨크 帝華의三社代表者는 缺席退場하고 또東洋레-온 帝人 會絹의代表者들은 別室에서 協議에 臨首協議한것으로써 大會社對中小會社의 對立이 當局裁定의 承認을 中心으로 正面衝突한것가티 보힌다。

◇

中小會社側이 果然 어떠한 要求를 하엿든지는 嚴秘에부처 잇스나 昭和、大阪의 兩社에對한 當局의 裁定이 最近加盟한 諸社의 加盟事情보다 매우 寬大한點으로 新設制限의 規定과 休錘規定의 適用에 關하야 重大한改正要求를 할모양이다 그러므로 或은 人絹界에는 다시 深刻한 內部的紛糾가 생길形勢가 잇다는消息이다。

今日財界(卄二日)

◆米	今日止	比前日
仁川正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㊂三等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一斤	[illegible]	不變

◆市中金銀價		
金 一匁	[illegible]	[illegible]
銀	[illegible]	[illegible]

◆株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圓)	
大阪綿糸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FAQ	[illegible]	不變

大局方針如何

漫性弱氣要一考

重要國策의 第一인 電力國營이 電力統制로 緩和되리라하나 株界에는 漠然한 好感이 업지 東電의 約一圓高程度에 不過하고 東新 其他는 依然低迷不振이엇다。

東京東新이 昨後場에 또百卄一圓臺로 再落되어 氣味 다시 不良해진터이나 百二十圓割後果然百圓臺의 軟派目標가 實現될것인지 昨今의 保合이 昨秋에디오피아戰爭市勢 直前과 恰似한點으로보던지 또는大底란 判斷不許이오 依例지금가태서는過去의例로보아도 漫性的弱氣로한 處置이 果然得策이라할수업기도 한바 夏枯末期에處하야 大局方針을定함에잇서는 充分한 考慮가必要할것가튼 形勢이엇다

後場下落

後場은 三十二圓八十錢으로 始初後三十二錢에三十錢高로 二十七錢에 二十四錢으로 二十六錢 四本同價로下落止揚하다

當地漸次軟化

來客의賣注로

阪地先限은 三十二圓八十錢臺의 高價를示한後 依然下落狀態를 하나그러나 當地는意外來客의 賣注文이續出하야 販仁의賣는 知中二百三十餘丁으로 擴大하바 되엿다 此販仁兩地의 米界事情을 對照하여보면 端境期에 接近한 在來狀態는 朝鮮은比較的 昨年同期보다 潤澤한모양이나 日本內地는 宛然히 品薄을呈하고 今年稻作의 狀況으로는 朝鮮은凶作의 悲觀을呈하는 그反面에 日本內地는 平年作以上의 樂觀을 呈하야 벌서부터 六千萬石以上의 收穫說이 濃厚하다 그러하니

朝新萬株移出

朝新株에對하야 日本內地側에서 着目하야 現株一萬株가건너 갓다는말이잇다 무엇을根據로한 것인지는모르겟스나 朝取의業績이라든지 또는 米取一個所로되는 때朝取米豆部의優越權인點으로든지 前途가조케보는것이 事實로 地場側도 은근히買機를窺고잇다 는데 全般株界에秋高가 잇슴면 朝新도 相當한 高價로進할것은 推測되나 朝新의實思想은元來成功한例가업서든만콤 深入할것은 못되고 投機筋으로 買해둠은無妨하다는말이잇다

朝石은過高?

朝鮮石油株는 第二回拂込徵收後 卄二、三圓唱이고 其後同社製造開始와 販賣權의確立豫想및 朝鮮內重油輸入權許可、石油의大幅値上等을 好感하야 二十一日後場은 三十六圓五十錢의高價로飛騰되고 二十二日도 三十六圓丁이엇는데 前途가樂觀되는株라할지라도 近者過高의嫌이 不無하니 飛付買는警戒가 조흘것이라는말이잇다

商況(卄二日)

株式 突込警戒 少堅

前場下支

昨後場 東新再落이든후올니어 今前場은 休日을 압둔 半日立會로 또突込賣警戒와 國策株緩和의 消極的好感으로 下支되어 少堅裡大引이엇스니 即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五十錢高인 百二十二圓丁、日産二十錢高인 七十八圓四十錢 日産新十錢低인 二十五圓十錢 大新六十六圓七十錢 鐘新二十錢高인 百五十九圓八十錢 朝新二十錢高인 三圓八十錢 朝取七十錢 日魯 二十一圓八十錢 日魯新二十一圓七十錢에 各大引되고 朝石三十六圓丁 北鉱二十四圓二十錢 日鑛百七圓丁 各一本이엇다

▲逆日步一東

朝新은 株不足 六百八十으로 逆日步八錢、朝石은 株不足二十足百으로 逆日步九錢、日鑛은 株不足百으로 逆日步卅二錢이엇다。

實物前場取引

▲富士木材一八〇 ▲東滿重工一六二〇 ▲大同電力四五五〇 ▲팔프工業一六五〇 ▲滿鐵新拓一〇七〇 ▲滿洲세멘트八七〇(取引高一二〇枚)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休日을압두고 市場은 諸株商況에 推移되고 內債는 五分利債의 五錢少弱인外는 焦燥로同際保合이오 外貨債는 佛貨의 十錢低로 米貨債는 五分半六分半共히 不變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一[illegible] ▲二回四分 [illegible]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illegible] ▲第三五分 [illegible] ▲二回四分 [illegible] ▲一回四分 [illegible] ▲佛貨四分半 [illegible] ▲米貨六分半 [illegible]

期米 漸衰商狀 軟勢

前場少落

昨後場阪地三十二圓六十七錢止와共히 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六十三錢인 四丁反落을報하고 三十二圓二十九錢인 昨止同錢으로寄하얏다

飅風은無影響

天氣當分樂觀

今年으로서 네번재일어나는颱風은 아즉南洋方面에잇슴으로何等의影響이업고 朝鮮은 雨量不足으로 釜山、大邱、晋州에는小雨가 來하엿스며 氣象觀測에는 今明間 無變化로 當分天氣의 樂觀을 불할모양이다 果然 二百十日의天候는 果然何如할지 一考를要하면 아즉南洋海上에잇는颱風이 도發生될것이라고는 當分必要치안는것이나 二百十日만은 無事經過되지안흘가한다 그러나압호로 白露及二百二十日等의 諸厄日이 잇슴으로 아즉安心할수는업다 그런데 市勢의 그自體로하면 去六月中의 阪地三十四圓五十九錢과 當地三十二圓七十錢을 第一線天井으로하고 今月의 高價를 第二天井으로하지안흘가한 商談이 多하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頭上不透明이오 無材로 氣乘薄이며 小口의 小競閑散이고 市勢는 僅히玉關係에 左右되는 無氣力保合을 보이어 七〇錢以上은 値頃賣마이엇스나 六〇錢臺割에는 强氣買物이秘藏된狀態임으로 高下共히動期待難이오 委員會의 結果待이다

今朝主要賣買는如左하다

▲賣方 地場軟派朝鮮側、地場利喰

▲買方 地場强氣、地場側

株 ……電力國營의 電力統制로變形

▲重要國策의「닐버린」이 이지경이니 所謂國策이란 것들이 소리뿐이고말것이나아닐가? ▲우슴 쪽쪽으로國策穩健이란 가解消되고 軍需工業이 戰時的인 爆騰을 可能할 ▲東新도 百二十圓割을 期待하면 ▲極度不人氣悲觀에 올흔것은 反動高以外에 아모것도 업슬것

米 ……今年의 米作은 朝鮮의 凶作、日本內地의 豊作으로 보는것이 가할것갓다 ▲누구나 二百十日의 天候를 무서워하는모양이나 南洋海上에잇는 颱風은 西方으로 進行함으로 足히 憂慮할것이업다고 觀測所는 發表하엿다 ▲今後에도 颱風이 發生되는 颱風의마치 如何한 現象을 招來할지몰으나 二百十日까지는 安心될모양 ▲그런데 市勢는 今朝에 入하야 宛然히 軟化、一休後의 一落을 告하지 흘안가함이 問題

各地正米

京城引弛

定期不振과 實需不振으로 氣配十錢軟化이엇다。

㊂三等三一、四五 四等三一、一五 一等白米三三、〇〇

仁川軟調

期米의 軟調와 幾下在近으로보아 一般買氣稀慶로 委縮되고 唱은 十錢軟化이엇다。

㊂三等三一、四五 四等三一、一五 一等白米三三、七〇

釜山頭重

日本內地의 買氣 中絶로 當用小口買外는 顯著한 買物이업고 市況은 頭重한 形勢를 示하얏다

㊂三等三一、四〇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三三、八〇

大邱凡調

持米側의强張으로 市中에 物薄인一方 環境不透明으로 買氣不振이오 取引은 자못消極的이오 唱은 十錢 軟化이엇다

㊂三等三一、一〇 四等三〇、八〇 一等白米三三、四〇

群山保合

實物不足이나마 市況은 底堅保合이엇다

㊂三等三一、〇五 四等三一、九〇 一等白米三三、〇〇

木浦同調

作況如何에 重點을두어 一般이 實需不人氣濃化하고 新規實物이 殆無하야 取引은 잘되지안햇다

㊂三等三一、一〇 四等三一、八〇 一等白米三三、〇〇

金融(卄二日)

◆海外經濟◆(卄一日)

倫敦金塊	六磅十八志三片二分一	
倫敦銀塊	[illegible]	
紐育銀塊	[illegible]	
米棉	[illegible]	
印度棉	[illegible]	

◆朝鮮銀行勢◆(卄一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日本銀行勢◆(卄一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交換高	[illegible]	
預金	[illegible]	
貸出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穀類(卄二日)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卄二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綢布◆

[illegible]

◆綿粕沖價◆

[illegible]

◆油沖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株式(卄二日)

◆朝取短期◆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米 株 康益夏商店 仁川 京城 金益證券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期米 株式 玉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實買高◆

[illegible]

期米(卄二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石金 分析賣買 土金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一〇番地 電話本局③二三一六番 振替京城一五一五四番

商品(卄二日)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卄一日)

[illegible]

◆利外武期栗◆(卄一日)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龜ノ尾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興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馬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